

2023년 교육정책 현장연구 연구보고서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 책임 연구원** 김규대 (지천초등학교 교사)
공동 연구원 이지혜 (대교초등학교 교사)
유일 (지천초등학교 교사)
김태일 (왜관동부초등학교 교사)
이기택 (지천초등학교 교사)
최희경 (지천초등학교 교사)
권수진 (해마루초등학교 교사)
자문 위원 임유나 (대구교육대학교 교수)
이민혜 (대구교육대학교 교수)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Gyeongsangbuk-do Office of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2023년 교육정책 현장연구 연구보고서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 책임 연구원** 김규대 (지천초등학교 교사)
- 공동 연구원** 이지혜 (대교초등학교 교사)
유일 (지천초등학교 교사)
김태일 (왜관동부초등학교 교사)
이기택 (지천초등학교 교사)
최희경 (지천초등학교 교사)
권수진 (해마루초등학교 교사)
- 자문 위원** 임유나 (대구교육대학교 교수)
이민혜 (대구교육대학교 교수)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Gyeongsangbuk-do Office of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연구 요약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대전환의 시대에 진입하며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학생 주도성과 역량을 강화하고자 학생 생성 교육과정을 도내 전 초등학교의 3~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원들은 정책 과제에 대해 높은 이해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성과 일치하며 학교수준 교육과정의 자율화를 증진하여 교육 내용을 풍부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국가교육과정기준이 뚜렷하기 때문에 지역의 정책 과제가 학교 현장에 운영 부담을 초래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본 연구는 도교육청과 학교가 각각 지원할 수 있는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문헌 연구, 설문 조사를 통한 양적 연구, 심층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 수행에 따라 도출한 연구의 결론은 아래와 같다.

도교육청 차원의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문제 1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교육청은 교육 공동체 구성원들과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교육 목적과 방향성을 공유함으로써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야 한다.

둘째, 도교육청은 단위학교가 학교 특성과 운영상 문제점을 고려하여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여 정책 과제에 투입된 자원이 교육의 성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 도교육청은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네트워크 및 시스템 구축을 통해 단위학교 및 교사의 운영 실행을 지원해야 한다.

넷째, 도교육청은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하는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업무를 경감을 위하여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도교육청은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교수방법 및 학습방법을 체계화하여 제시해야 한다.

여섯째, 도교육청은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체계적 운영 방안을 체크리스트로 개발하여 교사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학교 차원의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문제 2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는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교육 목적과 방향성을 학교 구성원들에게 명시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둘째, 학교는 학교수준 교육과정을 먼저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학교 특성에 부합하는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학교는 학생 생성 교육과정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학내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넷째, 학교는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교사 역량 강화와 업무 경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학교는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교수방법 및 학습방법을 학교 차원에서 협의하고 선정하여 교사 간 협력적 운영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도교육청 및 학교 차원의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에 관한 결론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도교육청은 교원의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교장 및 교감이 정책 과제 운영 방법 및 필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교사를 지원하도록 관리자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교사들이 관련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해야 하며, 지속적 컨설팅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단위학교는 업무전담팀을 배치하거나 학생 생성 교육과정 지원의 역량을 가진 자를 업무담당자로 지정하여 교사의 정책 과제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 학교수준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불필요한 행사를 배제하여 정책 과제 운영 시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운영 지원 방안은 단위학교의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명시되어 실제적 효력을 지녀야 한다.

셋째, 도교육청과 학교는 학생 생성 교육과정을 교육 공동체 구성원에게 명시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정책 과제명을 정확히 사용하고 운영의 과정과 결과를 공유하여 학생 생성 교육과정이 경상북도의 교육 문화로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

차 례

I. 서론	1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1.3 연구 실행 과정	3
II. 이론적 배경	4
2.1 학생 생성 교육과정	4
2.1.1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이해	4
2.2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의의와 한계점	14
2.2.1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의의	14
2.2.2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한계점	15
III. 연구 결과	23
3.1 설문 조사 개요	23
3.1.1 설문 조사 목적	23
3.1.2 설문 조사 대상	23
3.2 설문 조사 결과	24
3.2.1 학생 생성 교육과정에 대한 현장 교원 인식	24
3.2.2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 실태	29
3.2.3 운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	35
3.3 설문 조사 시사점	40
3.4 심층면담 개요	42

3.4.1 심층면담 목적 및 대상	42
3.4.2 심층면담 참여자 정보	42
3.4.3 심층면담 분석 방법	44
3.5 심층면담 결과	44
3.5.1 교육과정 운영 지원	44
3.5.2 학습자 지원	46
3.5.3 운영 활성화	51
IV. 결론	57
V. 제언	67
참고문헌	68
부록	70

표 차례

<표 1> 학생 생성 교육과정 설계의 단계별 절차	9
<표 2>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 형태 구분	11
<표 3> 탐구 학습 교수 연속체	12
<표 4>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 형태 재분류	14
<표 5> 배경 정보별 참여 인원	23
<표 6> 학생 생성 교육과정 이해 및 공감	24
<표 7> 이해와 공감에 관한 상관분석표	24
<표 8>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효과에 대한 인식	25
<표 9> 공감과 효과에 관한 인식 상관분석표	26
<표 10>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차별성 및 적합성에 대한 인식	27
<표 11>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상의 문제점	29
<표 12> 운영 부담과 시수 확보 상관분석	29
<표 13>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 방식	30
<표 14>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 안내	30
<표 15> 학생 생성 교육과정 평가 계획 수립	31
<표 16> 학생 생성 교육과정 예산 사용 실태	32
<표 17> 학생 생성 교육과정 자료집 활용 현황	33
<표 18> 자료집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	34
<표 19> 학생 지도 주체에 관한 의견	35
<표 20> 내용 선정 방식 및 활동 형태	36
<표 21> 교원 지원 방안	37
<표 22> 교원의 교육과정 문해력 향상 방안	38

<표 23> 학교자율시간과의 연계 방안	39
<표 24> 연계 운영 가능한 정책	40
<표 25> 면담 참여자 정보 및 면담 내용	43
<표 26> 코딩 결과	44
<표 27> 목적 부문 체크리스트	59
<표 28> 교육과정 부문 체크리스트	60
<표 29> 네트워크 부문 체크리스트	61
<표 30> 시스템 부문 체크리스트	62
<표 31> 예산 부문 체크리스트	62
<표 32> 교사지원 부문 체크리스트	63
<표 33> 시스템 부문 체크리스트	64
<표 34> 교수방법 부문 체크리스트	65
<표 35> 학습방법 부문 체크리스트	66

그림 차례

[그림 1]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프레임워크	5
[그림 2]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인간상	6
[그림 3] 학생 생성 교육과정 PDSR 사이클	9
[그림 4] 학교수준 교육과정의 자율화 촉진	18
[그림 5] 국어과 개념 기반 교육과정 설계와 학습 활동 실행의 방향성	21
[그림 6]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교육 목적과 인간상	58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대한민국은 대전환의 시대를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 맞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우리 교육은 복잡성, 불확실성, 변화와 모호성이 증폭되는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이 삶에서 당면할 문제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제안과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핵심역량’을 통하여 지식과 기능의 습득을 넘어 학생의 역량을 길러주고자 하였다. 2024년부터 적용될 2022 개정 교육과정 역시 학생 역량 함양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제시한 ‘자주적인 사람’은 새 교육과정에서 ‘자기주도적인 사람’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핵심역량 중 하나였던 ‘의사소통 역량’은 새 교육과정에 ‘협력적 소통 역량’으로 대체되었다. 행위 주체성 또는 주도성으로 번역되는 ‘Agency’에 대한 교육 담론이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새 교육과정은 학생의 행위 주체성과 타자 및 공동체와의 협력을 역량 함양의 방법으로 삼고 있다.

OECD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2030 연구는 새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주도성과 역량의 관계를 ‘학습 나침반’이라는 은유를 사용하여 설명한다. 나침반이 여행자에게 방향을 알려주듯 학습 나침반은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여정을 안내한다. OECD 학습 나침반 2030은 학생들이 환경과 일상생활의 변화를 어떻게 주도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지를 시사한다. 더불어 건강(Well-being)한 미래 사회로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및 가치가 어떻게 역량 함양의 기반을 제공하는지를 보여준다.

새 교육과정은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대강화하고 지역화 및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중시한다. 지역과 학교의 특색에 맞는 교육과정 정책 운용의 방안으로 2021학년도부터 경상북도교육청의 전 초등학교는 학생 생성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은 ‘학생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배움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성찰하는 교육과정’이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은 학생의 삶과 연계한 학습을 통하여 학생 역량과 주도성의 신장을 궁극적으로 추구한다. 학교수준 교육과정의 자율화를 촉진하여 다양성과 풍부함을 증진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의 산물이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은 도입 이후 운영 초기 단계에 있기에 운영 방식의 체계적 정립

이 필요하다. 본 정책에는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합이 학교수준 교육과정이라고 바라보는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 교육 현장은 필연적으로 학교수준 교육과정의 기존 운영 방식에 학생 생성 교육과정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하는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목적과 운영 방법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목적 및 방향성, OECD 학습 나침반이 제시하는 역량과 주도성 함양의 방법과 일치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도입 취지가 교육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학생 생성 교육과정에 영향을 준 2022 개정 교육과정, OECD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2030, 이해중심 및 개념기반 교육과정과 같은 교육과정 설계 프레임워크 등을 분석하여 운영 방식을 체계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하여 정책의 도입 단계에서 교사와 학생이 느끼게 될 부담과 혼란을 감소시킴으로써 정책의 현장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학생 생성 교육과정에 대한 도내 교원의 인식 및 운영 실태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정책이 잘 구현된 구체적 사례를 통하여 성공적 운영의 방안을 도출하며, 도입 단계에서 야기된 현장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제안함으로써 현장의 교사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연구 결과를 통하여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체계적인 운영 방안을 제안하고, 교사가 교육과정 개발자의 소임을 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구안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학생 생성 교육과정이 학생의 역량과 주도성을 신장하는 자율적인 학교수준 교육과정으로 공고히 설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주요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교육청 차원의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둘째, 단위학교 차원의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운영 체계성을 강화하고 교육 현장을 지원함으로써 학생 생

성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주요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을 제시한다.

연구 내용	연구 방법
[연구문제 1] 도교육청 차원의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과제 관련 문헌 연구 ■ 설문 조사를 통한 양적 연구
[연구문제 2] 단위학교 차원의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천 사례 관련 문헌 연구 ■ 심층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

3. 연구 실행 과정

연구 절차	내용 및 방법	연구 기간			
		2~3월	4~5월	6~7월	8월
연구 계획	■ 연구 문제 및 연구 방향 계획				
	■ 연구 착수 보고회				
	■ 연구 자문 컨설팅				
	■ 학생 생성 교육과정 연수 참여				
	■ 공동 연구진 재교육: 교육과정 설계 및 학습 활동 연수 및 컨설팅 참여				
	■ 연구 실행을 위한 공동 연구진 토론회				
연구 실행	■ 문헌 연구를 통한 이론적 배경 고찰				
	■ 정책 운영 유사 사례 연구				
	■ 중간 연구 보고회				
	■ 현장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 조사				
	■ 운영 체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심층면담				
연구 검증 및 반성	■ 현장 지원 방안 제시				
	■ 운영 체계화 방안 제시				
	■ 연구 결과 정리 및 보고서 작성				
	■ 최종 연구 보고회				
	■ 연구 결과 전문가 자문 실시				
	■ 연구 반성을 위한 공동 연구진 토론회				
	■ 연구 결과 수정 및 보완				

II.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이론적 기반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학생 생성 교육과정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운영될 수 있는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1. 학생 생성 교육과정

가.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이해

학생 생성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비전(Vision)의 관점에서 학생 생성 교육과정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미래는 무엇일까? 미션(Mission)의 측면에서 어떠한 교육적 효과를 추구하는가? 실행(Practice)에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생성한다는 것일까? 이 장에서는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심층적 의미를 비전, 미션, 실행의 차원에서 짚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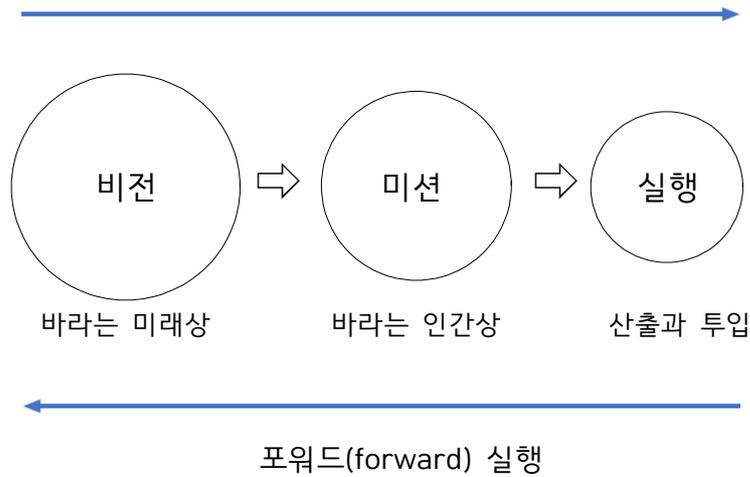
1) 정책 과제로서의 학생 생성 교육과정

학생 생성 교육과정은 학생을 배움의 주인으로 세우고자 하는 정기효의 지속적 정책 제안을 시작점으로 한다. 2010학년도 경상북도교육청 정책 공모에 학생 개별 학점제를 제안한 것을 기점으로 학생이 어떻게 배움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연구와 실천을 거듭하였다. 정책 제안은 받아들여져 경상북도교육청은 2021학년도부터 학생 생성 교육과정을 정책 과제로 지정하였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은 '학생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배움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성찰하는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2)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비전: 바라는 미래상

비전(Vision)이란 기대하는 미래를 뜻한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은 미래지향적 비전을 지니고 있다. 맥타이 외(2016)는 학교의 미래지향적 비전이 우리를 곧장 기대하는 미래로 인도할 수 있다고 하였다. 비전 세우기는 현재의 수정이 아닌 미래를 창조하는 데 전념하기 때문이다. 비전은 폭넓고 유의미한 변화를 이루기 위하여 초점을 명료화하며 과정을 안내하고 이끄는 기능을 한다.

백워드(backward)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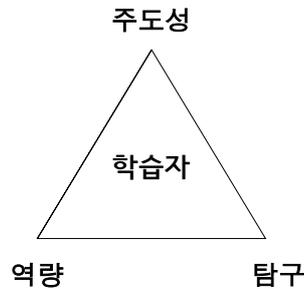
[그림 1]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프레임워크

개인이나 공동체가 바라는 미래상은 양극단의 연속체에서 다양한 양상을 나타낼 수 있다. 예컨대 표준화와 개인화처럼 미래상에 대한 개인과 공동체의 지향점은 양립할 수 있다. 양극단의 연속체 상에서 학생 생성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미래의 위치는 어디쯤 있을까? 정기효(2022)의 인식을 바탕으로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비전을 추론해 볼 수 있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궁극적 목표는 주도적이며 역량 있는 어린이를 길러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를 밝히는 것이다. 학교는 어린이들이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갖추고 다양한 문화와 관점을 존중하는 민주시민으로 자라나도록 지원한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은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함과 동시에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를 적극적으로 장려한다.

3)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미션: 바라는 인간상

비전이 이루고자 하는 미래상이라면, 미션(Mission)은 학생들이 달성하기를 바라는 결과를 의미한다. 핵심 사업에 관해 기술하되 교육기관에서 학생들에게 무엇을 제공하는지 교육의 수단을 열거해선 안 된다. 맥타이 외(2016)는 미션이 미래의 비전을 실행으로 촉진하기 위해 학생들의 학습과 관련하여 바라는 결과여야 한다고 하였다. 미션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며 심화 되는 '교육효과'(impact)로서 인간상 내지 학습자상의 형태를 띤다. 미션은 학습자의 자발적 수행을 기반으로 하며 교과 내에서 혹은 초교과적으로 전이될 수 있다.

정기효(2022)에 따르면 학생 생성 교육과정은 학습의 결과로서 다음과 같은 소양을 갖춘 인간상을 추구한다. 각각의 인간상이 어떠한 특성을 의미하는지 알아보자.



[그림 2]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인간상
출처: 정기효(2022).를 수정함

가)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사람

학생 생성 교육과정은 기존의 교육자가 정해주는 교육 내용에 의존하지 않고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교육 내용을 생성하도록 안내한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이 말하는 학습자 주도성(Agency)이란 무엇일까?

프랑스의 철학자 들뢰즈는 ‘사유야말로 생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발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들뢰즈의 세계는 끊임없이 차이가 반복되어 나타나는 생성 그 자체가 본질인 곳이다. 우리가 같은 강물에 발을 담글 수 없듯이 세계는 끊임없이 변한다. 이곳에서 우리는 경험과 배움에 기반하여 사유하게 된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에서 학습자 주도성은 개인의 고유성과 타자는 물론 세계와의 교류를 통해 구성되는 것이다. 주도성이 발현되기 위하여 적절한 자극과 개입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학습자 주도성은 우리나라 교육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기주도학습(Self-directed learning)과 차별화된 의미가 있다. 자기주도학습이란 학습자 스스로 학습의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학습을 실행하며 평가하는 자발적 학습 형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배움의 즐거움, 의미 있는 성취, 삶의 맥락을 모두 가로지르는 것은 학습자 자신이다. 즐거움을 느껴야 하는 사람은 학습자이고 학습자에게 의미가 있어야 성취감을 가질 수 있으며, 학습의 맥락이란 학습자 각자의 맥락을 뜻한다. 교실에서 공부

하며 자신이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학습자는 끝없이 도전하고 작은 성공의 경험을 쌓아 갈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교사도 할 일이 있다. 기존 지식의 재현을 목표로 하는 사실적 지식의 전달, 시범 보이기, 선창과 후창 같은 교육에서 벗어나 교사가 학생을 어떤 사례 속으로 인도하고 자신도 기호에 대한 응답을 실제로 보여 학생 나름의 '기호와 만남의 공간'을 만들어 내게 해야 한다. 학생들을 흔들 수 있는 텍스트의 제시, 불편을 느끼게 하는 문제 상황으로의 초대 등은 기호와 만남의 공간을 만들 좋은 방법이다. 들뢰즈는 '진리의 판정은 질문에 대한 대답에 있어서가 아니라 질문 그 자체에 관해 행해져야만 한다.'라고 말하며, 질문에 대한 정답만 찾으려는 행위는 스스로에 대한 예측만 낳을 뿐이고 '참된 자유는 질문 그 자체를 결정하고 구성하는 능력 속에 있다.'라고 하였다.

정기효(2022)는 '잠재성을 현실로 드러나게 하는 힘이 주도성'이라고 하였으며 '스스로 사유하고 실천하는 공부를 통하여 잠재성을 발현할 수 있는 시공간'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션의 층위에서 학생 생성 교육과정은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사람을 주요 인간상으로 보고 있다.

나) 역량을 발휘하는 사람

학교는 개인의 사회화라는 역할을 실현하기 위해 과거의 지식을 끝없이 전수하고 있다. 학교의 교육과정은 대부분 과거의 지식을 조직화한 전통적인 교과가 차지하고 있다. 얼마나 방대한 지식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있는지를 교육의 성과로 받아들인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은 지금까지의 공부는 동일성의 재현에 주축이 있다고 바라본다. 기존에 존재하던 지식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습득하여 재현해 내느냐가 관건이었고 우리나라의 교육은 그러한 기능을 곧잘 수행해 왔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어 이제는 맞고 틀림에 절대적 기준이 사라지고 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상반되는 해석들이 양립하게 되었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은 표준을 어떻게 재현해 낼 것인가보다 변화로 인하여 생기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에 관심을 둔다. 초복잡성을 지닌 시대에 부합하는 교육 목표는 지식, 기능, 가치·태도가 삶에서 총체적 역량으로 발휘되도록 하는 것이다. 지식과 기능을 많이 소유하고 기존의 가치를 잘 내면화하

였다고 해서 복잡성을 넘어선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아무도 이루지 못한 성취에 도달하는 방법은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방법이다. 이 세는 주어진 가치를 재현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역량이 학생들에게 필요하다. 표준을 넘어선 배움의 내용과 학습 경험은 고정된 지식, 고착된 방식에서 벗어나 변화 가능한 유동성을 만들어 내는 역량을 신장한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은 역량을 발휘하여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변화를 창출하는 사람을 기르고자 한다.

다) 탐구를 지속하는 사람

학생 생성 교육과정은 스스로가 지닌 역량으로 주도성을 발휘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것, 문제를 발견하며 해결을 위해 끝없이 노력하는 것 등이 복잡성과 변동성이 증가하는 사회상에 부합하는 삶의 자세라 바라본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이 정책의 기본적 틀을 현장에 제공하나 고정된 방식이나 정형화된 절차를 강요하지 않는 것은 본질적으로 생성이 가변성과 유동성을 중시하며 학습자의 현상에 기반한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에서의 배움은 사막과 망망대해에 보이지 않는 길을 만들어 가는 배움이다. 매 순간 방향을 찾고 판단과 선택을 하며 길을 걸어가다 실패하면 즉각 수정하고 다시 실행에 나서는 과정의 연속을 배움이라 보는 것이다. 체계성이나 질서가 없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새로운 길을 내며 미래로 걸어가야 하는 학습자에게는 이러한 배움이 절실하다.

학습자의 삶과 교육과정의 분리는 생성의 배움을 가로막는다. 삶과 연계된 학습이란 학습자가 탐구를 통해 자기 경험과 지적 활동으로 내면의 구성을 이루며 지식과 의미를 생성하는 것이다. 생성은 지속적 탐구이며 나아가서는 새로운 삶의 양식이다. 학습자가 배움을 생성하는 행위는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운영 시수에 국한되지 않으며 생성이란 학교 현장과 삶에서 모두 일어날 수 있는 지속적 탐구이다.

4)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실행(Practice)

가) 학생 생성 교육과정 설계 방식

학생 생성 교육과정은 초교과적 교육 목표를 달성을 촉진하는 교육과정 설계의 방식을 제시한다. 계획(Plan), 실행(Do), 공유(Share), 성찰(Review)로 이루어진 4단계 교육과정 설계 방식은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대표적 실행 절차이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설계 방식은 교사와 학생이 선택할 몫이기 때문에 PDSR로도 불리는 4단계 설계 방식은 표준성이 아닌 대표성을 띠고 있다. 학생을 배움의 주체로 세우는 교육의 철학을 교육과정 실행의 방식 선정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견지이다.



[그림 3] 학생 생성 교육과정 PDSR 사이클

<표 1> 학생 생성 교육과정 설계의 단계별 절차

단계	단계별 설계 내용
계획 Pl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 탐색, 핵심 질문 생성, 성취기준 연결 또는 생성 ■ 수행과제 설정(GRASPS), 평가 기준 마련, 학습 계획 수립
실행 D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과제를 2~4개의 세부 과제로 나누어 실제 수행 ■ 자료 수집, 해결 방안 찾기, 발표물 만들기 등
공유 Sha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 결과물 발표 및 보완 ■ 발표 방법은 학습 조직의 규모나 주제에 따라 다양함
성찰 Revie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평가 및 동료 평가 실시, 자기 소감문 활동 ■ 더 궁금한 점을 통하여 후속 수행과제 계획

학생 생성 교육과정 설계 단계인 PDSR은 학생 주도성 구축을 위한 프레임워크에 착안하여 설정되었다. 지마(2021)에 따르면 주도성 단원 설계안(Agency Unit

Planner)의 4단계를 이루는 탐구 시작, 학습 목표, 지식 적용, 성찰과 교실 문화가 학생 주도성 구축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성한다.

교실 문화를 형성하기 위하여 교사는 감독(director)의 역할을 수행한다. 학생들은 독립을 실천할 기회와 스스로 다음에 무엇을 할지 알아낼 기회를 얻는다. 학생들은 일상적 일과에 대한 표준 운영 절차를 작성하여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소속감이 학습을 위한 올바른 마인드셋(Mindset)이라는 신념을 갖게 된다.

주도성 단위 설계의 하위 요소로 탐구 시작(Inquiry starter)을 구성할 때는 궁금증을 촉발하는 활동을 계획한다. 다음으로 학습 목표(Learning targets)를 설정하며 학습 목표와 단원의 토대가 되는 필수적 지식을 명료화하고, 주도성의 마인드셋과 스킬셋(Skill-set)을 준비한다. 이후 지식 적용(Application of the knowledge)을 계획하며 기초적 지식, 학생의 학습법, 학습 증거 등을 목록화하고, 평가와 최종 프로젝트를 설계한다. 마지막으로 학습 경험 전, 중, 후에 필요한 학생 성찰을 준비한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설계 방식인 PDSR은 계획(Plan) 단계에서 학생들이 학자가 질문하고 탐구하듯 자기 질문을 해결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배움의 길을 설계한다. 실행(Do) 단계에서는 학생이 스스로 설계한 배움의 길을 따라 질문에 답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다양한 층위의 사실과 소재를 접함으로써 보편적이며 전이(Transfer) 가능한 개념(Concept)과 개념적 이해(Conceptual Understanding)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 학습자가 형성한 개념적 이해는 영속적 이해(enduring understanding) 또는 일반화(Generalization) 등으로도 지칭될 수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새로운 상황으로 능히 전이(transfer) 된다는 것이다. 위긴스(2005)는 학습 결과가 다른 학습에 영향을 미치고, 배운 것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을 전이라 일컬었다. 에릭슨(2017)은 '사실에 의해 뒷받침되며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아이디어'가 전이 가능한 이해라고 하였다.

학생들은 공유(Share) 단계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자신의 실행 결과를 타인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공유 단계에서는 학예회의 형식부터 프로젝트 학습의 포트폴리오 제작 같은 여러 형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공유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실행의 과정과 결과를 잘 알 수 있도록 정리하고, 공유 자체를 성찰과 연관 짓는 것이다.

성찰(Review) 단계에서 학생들은 학습 전 과정을 돌아보며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구분한다. 교사는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생각하도록 학생들을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역량 교육을 할 때

학생들의 성장 및 역량 발달을 위해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성찰이다. 학생들은 성찰을 통해 자신을 학습자로 인식하며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한다. 성찰은 삶 전반에 적용 가능한 사고 습관 형성에 이바지하며 학교 밖의 삶까지 이어질 개인의 역량을 갖추도록 촉진한다.

나)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실제

교육 현장에서 볼 수 있는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실제는 학생의 주도적 참여 정도, 교과 및 성취기준과의 연계 정도 등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띤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운영 형태를 구분한 사례는 경상북도교육청(2023)의 학생 생성 교육과정 실천 사례집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례집에서는 교과형, 주제형, 개방형으로 운영 형태를 구분하고자 하였다.

<표 2>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 형태 구분

구분	교사	학년	교과	특징
교과형	㉑	5	과학	- 1학기 과학 교과를 전체를 공부한 후 더 깊이 탐구하고 싶은 문제 생성 - 2학기 3단원 날씨와 우리 생활을 시작하기 전, 날씨에 관한 질문 받고 탐구 문제 선정
	㉒	4	사회	- 동료 교사와 함께 사회과 중심의 월별 배움 지도 작성하고 관련 개념 제시 - 필요한 것의 생산과 교환에 대하여 학생 개별 주제, 과제, 질문 만들기 및 모둠별 활동 계획
주제형	㉓	5	과학	- 다양한 생물에 대하여 배운 것을 바탕으로 동물도 식물도 아닌 생물에 대한 탐구 질문 생성
	㉔	3	(진로)	- 동학년 교사와 함께 진로를 주제로 정하고, 나에게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나의 미래 직업 탐구
개방형	㉕	3	과학 도덕	- 환경이라는 주제에 대한 책을 학생들이 함께 선정하고 책을 읽고 궁금한 점을 모으고 작은 과제들을 선정
	㉖	1~6	미술	- 종이접기와 수채 미술을 주제로 두 모둠을 이루고 하고 싶은 것을 선정

출처: 경상북도교육청(2023).

프로젝트 학습이 학생 주도적 교수·학습 활동을 의미한다면 학생 생성 교육과정은 수업과 평가의 설계를 포함하므로 단원 설계 수준의 교육과정이라 볼 수 있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질문을 시작점으로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한다는 점에서 프로젝트 학습과 결정적 차이가 있다.

정기효(2023)는 학생 주도성을 중요성을 역설하며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출발점이 학생의 관심사나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실사례를 살펴보면 성취기준을 충실히 반영함과 동시에 학생의 관심과 문제의식을 시작점으로 삼을 수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학생 생성 교육과정을 운영하더라도 학생의 관심사와 문제의식이 시작점이 된다면 이는 정책 과제의 성격에 충분히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 실행 양상의 구분에서 개방형이 교과형, 주제형처럼 하나의 범주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모든 학생 생성 교육과정이 일종의 개방형 탐구이기 때문이다. 교과 성취기준의 반영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학생 생성 교육과정은 학생의 질문과 문제 제기를 시작점으로 삼는다.

자이언 외(2012)에 따르면 개방형 탐구(Open inquiry)란 교사가 탐구를 수행할 지식의 틀을 정의하나 학생이 다양한 탐구 질문과 접근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는 탐구를 의미한다. 구조화된 탐구(Structured inquiry), 안내식 탐구(Guided inquiry), 개방형 탐구 등은 아래와 같은 교수 연속체 상에 존재한다.

<표 3> 탐구 학습 교수 연속체

교수 연속체	특징
직접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의, 튜토리얼, 데모를 통한 수동적 학습 형태임.
↕	
구조화된 탐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가 특정 질문이나 문제, 명확한 지침과 절차를 제공함. 학생의 사전 지식이 부족하거나 새로운 개념 도입에 유용함.
↕	
안내식 탐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가 특정 질문과 문제, 지침과 절차를 어느 정도 제공함. 학생이 탐구를 주도하며 예상 못한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음.
↕	
개방형 탐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이 탐구 질문과 접근 방식을 설계 또는 선택함. 가르침과 배움을 분리하지 않고 학습 커뮤니티를 형성함.
↕	
발견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의 지도가 매우 제한적이며 학생 스스로 자신의 학습을 지도하며 개념을 스스로 발견하도록 함.

출처: 자이언(2012)., 마샬(2018).

학생들이 탐구하고 싶은 흥미로운 현상을 찾는 단계에서부터 시작되는 탐구, 성취기준이나 특정 주제에 얽매이지 않는 탐구, 마치 무(無)에서 시작하는 듯한 탐구

는 일반적으로 개방형 탐구라 쉽게 식별된다. 탐구를 시작할 때 교과에 얽매이지 않고 학생의 흥미, 호기심, 관심을 바탕으로 주제 선정 활동을 하는 경우를 개방형 탐구의 전형이라 볼 수 있다.

교사가 교과의 성취기준이나 주제를 선정하였으나 특정 탐구 질문과 문제 상황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이를 개방형 탐구라 할 수 있을까? ㉞교사처럼 과학 교과 성취기준과 연계하여 날씨라는 주제를 제시하더라도 학생이 스스로 탐구 질문을 생성하고 문제 상황을 발견하게 한다면 이는 개방형 탐구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㉟교사처럼 학생이 한 학기 동안 과학 교과의 성취기준을 모두 배운 후, 이와 관련하여 스스로 질문을 떠올려 탐구를 시작하게 한다면 이 역시 일종의 개방형 탐구이다.

반대로 수업 시간 중에 교사가 던진 질문으로 탐구가 시작되는 상황을 떠올려보자. 교사의 제시로 학생들은 ‘날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관하여 탐구를 시작한다면 학생이 높은 주도성을 발휘할지라도 이것을 개방형 탐구라 보기 어렵다. 교사가 던진 질문에 대해 학생이 스스로 탐구 방법을 정하면 이는 안내식 탐구이며, 탐구의 방법마저 교사가 제시한다면 이는 구조화된 탐구이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에서도 교사는 학생에게 충분한 안내와 조언을 할 수 있다. 개방형 탐구 중에도 사고의 스캐폴딩(Scaffolding)을 촉진하고 피드백을 제공해주는 교사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성취기준에서 가져온 주제를 중심으로 탐구하는 것 역시 무방하다.

중요한 것은 학생이 직접 질문을 생성하고 탐구 방법을 결정하는 개방형 탐구의 본질이다. 교사의 안내와 조언이 적고 학생들이 동료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조사 활동을 포함한 탐구 진행 방법을 직접 결정하더라도 교사가 이미 준비해온 질문을 시작점으로 삼는 탐구는 개방형 탐구라 볼 수 없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취지는 개방형 탐구를 하자는 것이다.

학생들은 학년 교육과정 속에서 구조화된 탐구, 안내식 탐구, 개방형 탐구를 모두 경험해볼 수 있다. 경상북도교육청이 학교자율시간 중 특별히 연간 15차시 내외를 활용하여 학생 생성 교육과정이란 정책 과제를 운영하도록 권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학생 생성 교육과정은 개방형 탐구가 주는 장점을 학생들이 경험해보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자이언(2012)은 구조화된 탐구나 안내식 탐구와 차별화되는 개방형 탐구의 장점을 거론한다. 개방형 탐구는 학생들이 지식의 본질에 더 익숙해지게 하며 탐구 기술과 실습을 더 많이 경험하는 더욱 높은 수준의 탐구이다. 모든 학생

생성 교육과정은 개방형 탐구라는 본질에 근거하여 앞서 언급한 실사례 및 추가 사례를 아래와 같이 재분류할 수 있다.

<표 4>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 형태 재분류

구분	교사	학년	교과	특징		
				차이점	공통점	
개방형 탐구	교과 주제 연계형	가	5	과학	교과 성취기준과 연계된 주제를 교사가 제시함.	교사는 학생과 적절하게 상호 작용하며 사고의 스캐폴딩을 돕고 피드백을 제공함. 학생은 주제에 관한 질문, 문제 상황을 직접 떠올리고 탐구의 방법을 스스로 결정함.
		나	4	사회		
		다	5	과학		
	교사 주제 제시형	라	3	(진로)	교과 성취기준 밖의 주제를 교사가 제시함.	
		마	3	과학, 도덕		
		바	1~6	미술		
	학생 주제 생성형	주제별 멘토 교사	6	다양한 교과	학생이 직접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함.	

출처: 경상북도교육청(2023).을 수정함, 생성교육네트워크(2023).

2.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의의와 한계점

가.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의의

세상은 인공지능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으나 학교 현장은 아직도 교과서 안의 지식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가르치는지에 관한 관심을 거두지 못한 후진적 상황에 머무르고 있다. 초등교육에서 중등교육으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생들은 지식 암기 위주의 교육을 더 많이 받게 된다. 국가의 입시 제도는 주입식 교육과 경쟁이란 학습 풍토가 초등교육에서조차 범람하도록 한 주요 원인이다. 명문 대학 진학을 위한 시험은 ChatGPT가 현대인들에게 준 강렬한 충격과 무관하게 여전히 암기한 지식을 문제 풀이에 응용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학부모

들도 변화하는 사회와 교육 현실 사이에서 발생하는 괴리를 지각하고 있으나 학교는 오히려 교육 혁신에 소극적이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은 미래 교육이 나아갈 지향점을 보여주는 혁신적 이정표이다. 맥타이 외(2016)는 학교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현재를 훌쩍 뛰어넘어 곧장 미래로 달려갈 것을 역설했다. 중국이 원시적 통신 인프라를 뛰어넘어 휴대전화로 직행한 방식을 떠올려 보자. 재래의 방식을 착실히 밟아나가는 것은 오히려 혁신을 저해한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은 학습자 주도의 교수·학습 계획과 실행, 공유와 성찰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기존 교육의 부분적 수정이나 답습을 거부한다. 학습자가 생성하는 지식이야말로 살아있는 지식이라 보고 있으며 탐구를 통하여 형성한 개념적 이해를 학습과 삶에 전이하는 행위 자체를 생성이라 여긴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은 교육의 철학이 어떻게 교육 현장의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관한 천착의 소산이다. 이미 교육적 효과가 검증된 이해 중심 교육과정을 근간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도입과 함께 대두되고 있는 개념 기반 교육과정을 접목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실이기도 하다.

근대교육은 이데아와 위치를 기반으로 한다. 학교 교육의 중심은 얼마나 이데아에 가깝게 재현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정해진 지점에 위치시킬 수 있는가에 있었다. 지식은 똑같이 재인되어야 하고, 특정 시기에 특정 지점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관점이다. 그러나 이데아는 실재계(實在界)가 아니다. 위치 또한 평균이라는 허상이 정해진 곳이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은 가변성과 유동성을 놓치지 않는다. 학생들은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면에 집중할 수 있다. 공간화된 개념으로 성장을 멈춰놓고 평가하지 않는다. 이데아로 환원되지 않는 주체, 평균에 붙들리지 않는 개별자, 고착되지 않은 지식, 무한한 잠재성의 교육을 꿈꾸는 것이다.

나.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한계점

1) 체계적 운영 방안 미비

경상북도교육청이 정책 과제로 2021학년도부터 도입한 학생 생성 교육과정은 운영 초기 단계에 있다. 관련 연수와 자료집이 배부되고 있으나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체계적 운영 방안은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실정이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은 '망망대해에 보이지 않는 길'을 만들어가는 일이므로 고정된 방식과 정형화된 절차를 지양하는데 이러한 특성이 현장에서 정책 실행 방법

을 가능하게 하는 데 모호함을 더한다. 정책 운영의 초기 단계에서는 학생 생성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명확한 비전, 미션, 실행의 방법을 자세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정책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 표준화된 방법의 하달이 아니다. 자료집의 두께와 배포 횟수가 새롭게 도입된 학생 생성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심층적 이해를 보장하지 못한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이 왜 교육과정의 층위에 속하는 것일까?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활동 주제를 선정하며 스스로 수립한 계획에 따라 학습을 수행하는 것만으로는 학생 생성 교육과정이 종래의 프로젝트 기반 학습, 탐구 기반 학습 등과 차별화된다고 주장하기 어렵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은 현장에 실행 자율성을 보장하되 정책적으로는 학교수준 교육과정이 갖추어야 할 조건을 충족하도록 엄정함을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각양각색의 수업을 모두 학생 생성 교육과정이라 간주하는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교사는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의 역량을 증진하기 위하여 자기 성찰을 통하여 실수를 극복하고 해마다 새로운 과제에 도전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 과제는 도내 전 초등학교의 모든 3~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대성을 띠고 있기에 교육 목적 달성을 운에 맡겨서는 안 된다. 어떤 교사는 오개념과 실수를 깨닫지 못할 수도 있고, 자기 성찰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새롭게 도입된 학생 생성 교육과정을 ‘학생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배움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성찰하는 교육과정’이라는 간단한 문장으로 심층적 의미를 전달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교사들이 도입 취지에 공감하나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실행하는 것인지 정확히 표현할 수가 없는 상황은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학습자 주도성을 키우기 위해 원하는 공부를 선택해서 마음껏 하게 하는 것으로 학생 생성 교육과정을 제대로 운영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정책 과제가 충족해야 하는 운영 방식을 더욱 상세히 체계화하고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

2) 정책 과제의 요구 과잉

교육과정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것은 어렵다. 학자들마다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정의할 뿐만 아니라 교육관에 따라 교육과정의 정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은 교수·학습 활동만을 지칭하지 않으며 학생이 자신의 배움을 스스로 계

획하고 실행하며 성찰하는 경험의 총체를 의미한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은 프로젝트 기반 학습, 탐구 기반 학습 등과 달리 교육과정의 층위에 존재한다. 교육과정으로서의 학생 생성 교육과정은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울 만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함과 동시에 교육 목표, 교수·학습, 교육 평가 등을 포괄한다.

국가수준 교육과정(National curriculum)은 각국의 국민 형성을 위한 주권국가의 교육과정이며, 지역수준 교육과정(Local curriculum)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결정한 교육과정이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은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기준을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지역수준 교육과정의 특성을 반영하여 내놓은 하나의 교육과정 정책 과제이다.

경상북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는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초등학교 교육 중점이 명시되어 있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과 높은 관련성을 가지는 교육 중점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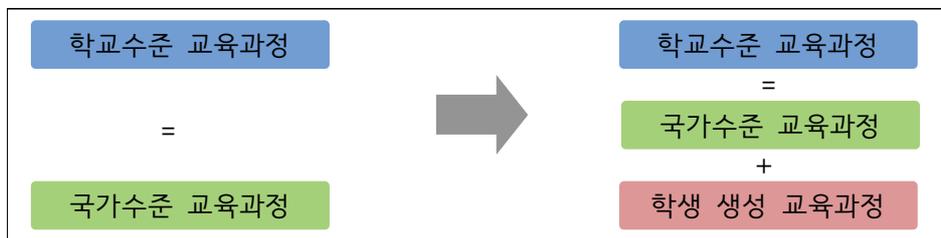
- 가. 학교 자율성을 바탕으로 학생의 삶과 연계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실행하여 의미 있는 학습을 한다.
- 다. 언어, 수리, 디지털 소양 등의 기초소양 교육으로 실생활 문제 탐구 능력을 키우며, 공동체의 가치를 함양하여 지속 가능한 삶의 태도를 키운다.
- 라. 학생 주도형 수업을 활성화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르고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한다.

임유나 외(2016)는 지역수준 교육과정의 기능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국가교육과정 기준이 뚜렷하므로 지역교육청이 새로운 교육과정 기준을 만들기보다 학교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을 지원하는 것이 도움이 됨을 강조한다. 홍후조(2022)는 국가, 광역, 지역 등 학교 밖에서 만들어지는 교육과정기준이 여러 가지이면 학교는 과잉 요구로 인하여 혼란을 겪게 됨을 지적한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은 학생의 주도적 학습 설계를 중시한다. 학생이 교육과정 설계에 직접 참여해야 하며 실행에 있어서 학생의 질문과 문제의식이 시작점이 되어야 하는 등 새롭고 추가적인 기준이 제시된다. 학생이 자신의 학습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최상위 수준의 경험을 통하여 역량을 증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학생 생

성 교육과정은 유의미성을 가질 수 있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삶과 연계한 학습, 교과 간 연계와 통합, 학습 과정에 대한 성찰을 통한 깊이 있는 학습의 달성이란 의도와도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다. 경상북도교육청(2022)에 따르면 학생 생성 교육과정은 학교수준 교육과정의 자율화를 촉진하여 다양하고 풍성한 확장을 아래와 같이 가능하게 한다. 다만 학생 생성 교육과정은 국가교육과정기준보다 높은 차원의 기준을 제시하므로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부담과 혼란을 가중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그림 4] 학교수준 교육과정의 자율화 촉진
출처: 경상북도교육청(2022).

3) 운영 시수 부족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은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에서 학교자율시간을 도입하였다. 학교자율시간은 교육과정 자율화 실현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 '학교는 3~6학년별로 지역과 연계하거나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교자율시간을 편성·운영'하게 되었다. 교과별 및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 시간에서 학기별 1주의 수업 시간을 학교자율시간으로 확보하여 운영한다.

학교자율시간의 도입은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대, 유연하고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구현할 수 있는 의의를 지닌다. 학교자율시간의 핵심은 정보교육 시수를 확보하는 것과 국가 교육과정에 나타나 있지 않은 새로운 과목이나 활동을 개설·운영하는 것에 초점이 놓인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차이점으로 중학교는 다양한 선택 과목을 개설하는 데 방점이 있다면 초등학교는 과목이나 활동을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명시한다. 활동은 성취기준이나 교과서 사용 및 개발이 과목에 비해 자유로우므로 필요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학교자유시간을 활용하면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운영 시수 확보가 해결될 것 같지만 실상은 시수 부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학교자유시간은 추가 신설된 시간이 아니다. 교과별 성취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학생의 질문과 문제 제기를 시작점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려면 성취기준을 생성하게 된다. 교과 성취기준을 새롭게 생성하면 교사는 기존 성취기준을 통합, 압축, 재구조화하여 수업 시수를 확보해야 한다. 기존의 여러 성취기준이 하나의 성취기준처럼 취급되면 학습 속도를 높여 교수·학습 활동을 할 수 밖에 없다.

성취기준 생성은 사실상 교육 내용의 추가를 의미한다. 연간 시수를 확대하지 않는 한 성취기준이 늘어남에 따라 주어진 시수 내에서 가르치고 배울 양도 늘어난다. 생성된 성취기준이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대체할 수는 없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더 적은 내용을 깊이 있게 학습하자는 개정의 방향성을 지님을 기억하고 정책 과제가 교수·학습에 부담을 가중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서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와 교사는 성취기준에 근거하여 학교에서 중요하게 지도한 내용과 기능을 평가하며 교수·학습과 평가 활동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일부 내용 요소를 추가해야 하는 경우 학생의 학습 및 평가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학년(군), 학교급 및 교과(군) 간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취지를 이행하고자 학생이 제기한 질문과 문제 상황으로 성취기준을 생성할 때는 학년(군), 학교급 및 교과(군) 간의 연계성에 유념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학생 생성 교육과정에 학교자유시간 중 15차시 내외를 할애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성취기준을 생성하려면 연계되는 교과를 파악하고 수업 시수를 고려하여 생성할 성취기준의 최대 수를 산정해야 한다. 이전 학년에서 이미 이수한 성취기준의 반복이 아닌지, 이후 학년에서 이수할 성취기준을 가져와 선행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철저히 따져 볼 필요성이 있다.

4) 백워드 설계 활용의 모순점

학생 생성 교육과정은 이해 중심 교육과정(Understanding by Design)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있다. 이해 중심 교육과정은 브루너의 지식의 구조에 근간을 두며 영속적 이해(Enduring understanding)를 교육 목표로 삼는다.

이해 중심 교육과정 개발은 3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에서 기대되는 학습 결과를

설정한다. 2단계에서 학습 목표가 성취되었음을 알 수 있도록 수용할 수 있는 평가 증거를 결정한다. 3단계에서 학습 경험과 수업 설계를 한다. 평가 계획이 학습 경험, 수업 설계보다 먼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백워드 교육과정이라고도 불린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은 학생이 초기 질문이나 문제 상황을 제시하길 요구할 뿐만 아니라 학생이 귀납적 탐구를 통하여 개념과 영속적 이해를 생성하길 원한다. 물론 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준다. 문제는 학생 생성 교육과정이 백워드 교육과정 설계 모형에 기초한다는 것이다. 백워드 설계는 핵심 지식과 핵심 기능을 결합하여 빅 아이디어(Big idea)를 영속적 이해의 문장으로 구상하는 작업으로 교육과정 설계를 시작하도록 한다.

빅 아이디어란 교육과정, 수업, 평가의 방향이 되는 핵심개념, 원칙, 이론, 절차를 말한다. 빅 아이디어는 영속적이며 단원을 넘어서서 전이(Transfer) 가능하다. 우리나라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백워드 교육과정 설계를 접목할 경우, 성취기준을 분석하여 목표 풀기(Unpacking)을 통해 빅 아이디어와 본질적 질문, 수행과제를 도출하게 된다. 백워드 교육과정 설계는 교사에게 높은 수준의 교육과정 리터러시(Literacy)를 요구한다. 이해 중심 교육과정을 활용하여 학생 생성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사 재교육이 도교육청 차원에서 선행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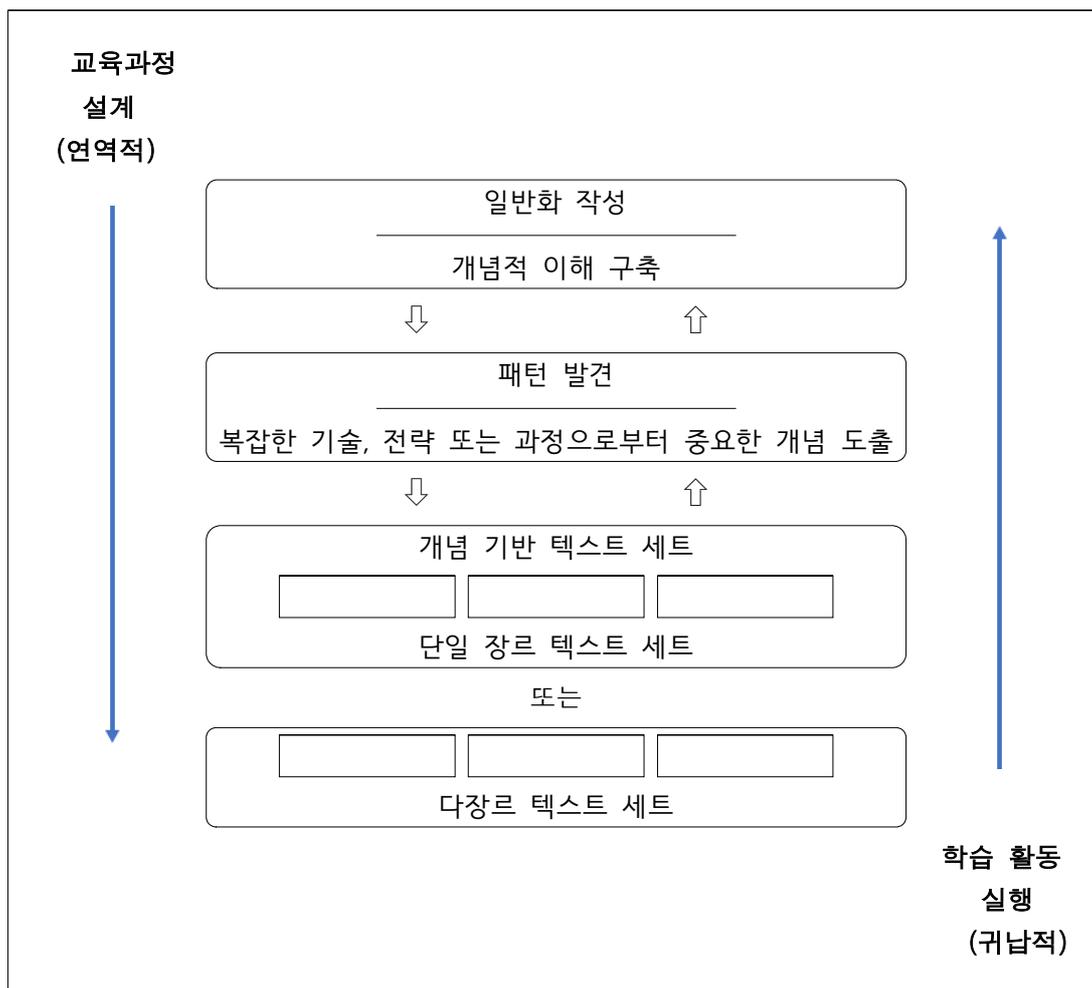
근래에 개념 기반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학교 차원에서 이를 학생 생성 교육과정에 접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개념 기반 교육과정 및 개념 기반 탐구학습과 학생 생성 교육과정을 접목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개념 기반 교육과정 역시 개념적 이해(Conceptual understanding)를 먼저 작성하고 평가 설계를 학습 활동 이전에 계획하는 백워드 교육과정 설계의 방식을 취한다.

개념 기반 교육과정 설계의 방향성이 일반화 작성으로부터 연역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교사가 이미 교과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인 교사조차도 교수·학습 활동을 해보기 전에 연역적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해 중심 교육과정이나 개념 기반 교육과정 같은 백워드 설계를 학생 생성 교육과정 단위 설계에 활용하게 되면 학습 활동을 경험해보지 않은 학습자가 직접 연역적 설계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학습 활동의 도달점에서 학습자가 전이 가능한 개념을 형성하고 영속적 이해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개념이나 영속적 이해를 중심으로 교사와 학생이 함께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방식은

국가교육과정기준을 웃도는 요구이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은 교사와 학생의 오해와 실패 경험을 모두 용인한다. 반면 이해 중심 교육과정이나 개념 기반 교육과정은 백워드 설계를 통해 교수·학습 활동이 교육의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게 한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과 백워드 설계 사이에 관점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개념 기반 교육과정 설계와 학습 활동 실행의 방향성은 아래와 그림과 같이 상호 반대의 방향성을 지닌다.



[그림 5] 국어과 개념 기반 교육과정 설계와 학습 활동 실행의 방향성
출처: 래닝 외(2019).를 수정함.

교육과정 리터러시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영역은 교육과정 설계에서 뿐만이 아니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 자료집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주도성(Agency), 역량

(Competencies), 개념(Concepts), 이해(Understanding), 전이(Transfer) 등과 같은 용어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학생 생성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면 교사 재교육이 필요하다.

교육과정 설계 이후 교수·학습 실행 단계에서는 탐구 기반 학습, 프로젝트 기반 학습과 같은 귀납적 학습법을 활용한 실행 사례들이 자료집에서 주로 제시되는데 이러한 학습법을 이해하여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능력을 배양해줄 교사 재교육의 장치는 부족한 실정이다.

개방형 탐구의 우수성을 역설하는 자이언(2012)은 구조화된 탐구에서 안내식 탐구로, 안내식 탐구에서 개방형 탐구로 점진적 이동을 하며 비판적 사고와 과학적 사고, 탐구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개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탐구 기반 학습은 종래에 강조해온 활동 중심 교수·학습과 달리 학문적 엄정성을 요구하는 과학적 교수·학습 방법이다. 자기 질문, 문제 상황 제시를 통하여 개방형 탐구를 하는 학생들은 학생 생성 교육과정 이전에 교사와 함께 구조화된 탐구, 안내식 탐구의 경험을 충분히 가져 보아야 한다. 교사는 다양한 탐구 유형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하므로 탐구 기반 학습에 대한 전문적 재교육이 요구된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은 교사의 도전과 실패, 오류 성찰과 발전이라는 실천 지향적 성장을 지향한다. 교사가 자기 경험으로부터 반면교사(反面教師) 하면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의 역량이 키워질 것이라 보고 있다. 연간 15차시 내외의 운영은 사실상 한 단원 분량의 시간에 불과하다. 경험을 통하여 교사의 역량이 높아지려면 실천 반복의 빈도가 훨씬 높아야 한다. 지금으로서는 연간 15차시 내외의 운영을 권고하며 교사에게 교육과정 리터러시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III. 연구 결과

[연구 문제 1] 도교육청 차원의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1. 설문 조사 개요

가. 설문 조사 목적

본 연구는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하여 해당 정책 과제에 대한 교원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교원의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정책 과제가 현장에 적용될 때 발생하는 현실적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 과제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교육청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나. 설문 조사 대상

설문 조사는 2023년 7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업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도내 전 초등학교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였다. 설문 조사에 참여한 교원의 수는 259명 가운데 담임교사는 244명, 전담 교사는 15명이다. 배경 정보별 참여 인원은 다음과 같다.

<표 5> 배경 정보별 참여 인원 (n=259)

배경 정보	현재 가르치고 계신 학년을 선택 바랍니다. (복수 선택 가능)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7명	9명	65명	77명	63명	93명
	2.23%	2.87%	20.70%	24.52%	20.06%	29.62%

배경 정보	근무 중이신 학교 규모를 선택 바랍니다. (본교 기준)			
	6학급 미만	6학급 이상 12학급 미만	12학급 이상 24학급 미만	24학급 이상
	58명	143명	34명	24명
	22.39%	55.21%	13.13%	9.27%

2. 설문 조사 결과

가. 학생 생성 교육과정에 대한 현장 교원 인식

1) 학생 생성 교육과정 이해 및 공감

학생 생성 교육과정에 대한 교원의 이해와 공감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을 시행하였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을 이해한다고 답한 교원은 모두 208명으로 전체의 80.31%에 해당한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필요성과 취지에 공감한다고 답한 교원은 162명으로 전체의 62.55%이다. 2021학년도 이래로 정책 도입 3년 차에 현장 교원의 정책 과제 이해도가 잘 형성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표 6> 학생 생성 교육과정 이해 및 공감 (n=259)

문항 내용		학생 생성 교육과정이 무엇이며 어떻게 실행하는지 알고 있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00명	108명	35명	9명	7명		
38.61%	41.70%	13.51%	3.47%	2.70%		

문항 내용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필요성과 취지에 공감한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72명	90명	49명	24명	24명		
27.80%	34.75%	18.92%	9.27%	9.27%		

학생 생성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은 다소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다.($r=0.531$, $p<0.001$)

<표 7> 이해와 공감에 관한 상관분석표 (n=259)

	이해	공감
이해	1	
공감	0.531***	1

* <0.05 , ** <0.01 , *** <0.001

2)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효과에 대한 인식

학생 생성 교육과정이 학교수준 교육과정 운영에 이바지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긍정적 응답은 46.72%, 부정적 응답은 25.1%였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이 교사수준 교육과정에 이바지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긍정적 응답은 51.74%, 부정적 응답은 25.1%였다. 과반수 정도의 참여자가 학생 생성 교육과정이 학교 및 교사수준 교육과정에 기여한다고 응답하였으나 오히려 이를 저해한다고 생각하는 인식도 분명히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과정 운영 이외에도 학생 생성 교육과정이 학습자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교원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이 학생 주도성을 증진한다는 문항에는 58.69%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증진한다는 문항에는 55.98%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반면 학생 생성 교육과정이 학생의 기초 학력 향상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전체의 53.29%가 응답하였다. 해당 정책 과제가 기초 학력 향상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인식에 대하여 더욱 면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8>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효과에 대한 인식 (n=259)

문항 내용		학생 생성 교육과정은 학교수준 교육과정 운영에 이바지한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46명	75명	73명	37명	28명		
17.76%	28.96%	28.19%	14.29%	10.81%		

문항 내용		학생 생성 교육과정은 교사수준 교육과정 운영에 이바지한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55명	79명	60명	37명	28명		
21.24%	30.50%	23.17%	14.29%	10.81%		

문항 내용		학생 생성 교육과정은 학생 주도성을 증진한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57명	95명	52명	26명	29명		
22.01%	36.68%	20.08%	10.04%	11.20%		

문항 내용	학생 생성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증진할 수 있다.
-------	--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53명	92명	64명	23명	27명
20.46%	35.52%	24.71%	8.88%	10.42%

문항 내용	학생 생성 교육과정은 기초 학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	-------------------------------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24명	26명	71명	65명	73명
9.27%	10.04%	27.41%	25.10%	28.19%

학생 생성 교육과정 도입 취지에 대한 공감과 효과 인식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 도입 취지에 대한 공감과 학생 주도성 증진 효과에 대한 긍정적 인식 사이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r=0.718$, $p<0.001$) 정책 도입 취지에 대한 공감과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 증진 효과에 대한 긍정적 인식 사이에도 높은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r=0.749$, $p<0.001$)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학생 주도성과 역량 증진이 교원의 정책 과제 운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표 9> 공감과 효과에 관한 인식 상관분석표 (n=259)

	공감	주도성	역량	기초 학력
공감	1			
주도성	0.718***	1		
역량	0.749***	0.86	1	
기초 학력	0.467	0.557	0.561	1

* <0.05 , ** <0.01 , *** <0.001

3)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 방식에 대한 인식

학생 생성 교육과정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방식을 세분화하여 설문항을 마련하고 교원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먼저 학생 생성 교육과정이 놀이 중심 교육과정, 1-1-1-프로젝트 학습과 차별성을 지니는지에 대하여 설문을 한 결과 전체의 52.13%에 해

당하는 135명이 부정적 응답을 하였다. 차별성이 크지 않다고 여기는 여러 정책 과제를 현장에서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에 관하여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은 저학년보다 고학년에 적합한지에 대한 문항에는 전체의 81.47%에 해당하는 211명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는데 학생 생성 교육과정이 고학년에 더 적합한 이유는 무엇인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하여 학생들은 교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문항에는 전체의 92.28%인 239명이 동의하였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동료 교사 간의 협력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전체의 81.47%인 211명이 동의하였다.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전체의 53.67%인 139명이 긍정적 응답을 하였고, 교감 및 교장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전체의 67.56%인 175명이 긍정적 응답을 하였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며 정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사가 학생에게 제공하는 도움, 동료 교원 간의 협력, 교감 및 교장의 관심과 지원, 학부모의 관심과 참여 순으로 교원이 필요성을 느낌을 고려할 수 있다.

<표 10>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차별성 및 적합성에 대한 인식 (n=259)

문항 내용	학생 생성 교육과정, 놀이 중심 교육과정, 1-1-1 프로젝트 학습은 서로 명확히 구분되는 차별성이 있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33명	35명	56명	80명	55명	
12.74%	13.51%	21.62%	30.89%	21.24%	
문항 내용	학생 생성 교육과정은 저학년보다 고학년에 적합하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31명	80명	30명	12명	6명	
50.58%	30.89%	11.58%	4.63%	2.32%	
문항 내용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해 학생들은 교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66명	73명	15명	2명	3명	
64.09%	28.19%	5.79%	0.77%	1.16%	

문항 내용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해 동료 교사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19명	92명	36명	6명	6명
45.95%	35.52%	13.90%	2.32%	2.32%

문항 내용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해 학부모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72명	67명	82명	17명	21명
27.80%	25.87%	31.66%	6.56%	8.11%

문항 내용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해 교감 및 교장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86명	89명	55명	13명	16명
33.20%	34.36%	21.24%	5.02%	6.18%

4)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상의 문제점

학생 생성 교육과정이 교사의 교육과정 운영 부담을 가중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전체의 82.63%에 해당하는 214명이 동의하였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시수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에 대하여 전체의 72.59%인 188명이 동의하였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이 교사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부담감을 가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이 교사에게 교육과정 운영 부담 준다는 의견과 기초 학력, 학년성, 교사의 도움 제공, 시수 확보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교사의 교육과정 운영 부담과 교사가 학생에게 도움을 제공해주어 한다는 인식 사이에서는 낮은 상관관계가 있었다.($r=0.718$, $p<0.001$) 반면 교사의 교육과정 운영 부담과 시수 확보의 어려움 간에는 다소 높은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r=0.692$, $p<0.001$) 교사의 교육과정 운영 부담과 시수 확보의 어려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표 11>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상의 문제점 (n=259)

문항 내용		학생 생성 교육과정은 교사의 교육과정 운영 부담을 가중한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47명	67명	31명	11명	3명
56.76%	25.87%	11.97%	4.25%	1.16%

문항 내용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시수 확보가 어렵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32명	56명	48명	18명	5명
50.97%	21.62%	18.53%	6.95%	1.93%

<표 12> 운영 부담과 시수 확보 상관분석 (n=259)

	기초 학력	학년	교사의 도움	운영 부담	시수 확보
기초 학력	1				
학년	-0.012	1			
교사의 도움	-0.079	0.491	1		
운영 부담	-0.29	0.122	0.359***	1	
시수 확보	-0.187	0.131	0.335	0.692***	1

*<0.05, **<0.01, ***<0.001

나.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 실태

1)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 방식 현황

2023학년도를 기준으로 학생 생성 교육과정 관련 교내 연수를 최초로 받은 시기에 대해 설문을 하였다. 연수를 미실시한 경우에는 연수 계획을 바탕으로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전체 인원의 90.35%가 최초 교내 연수를 개학 이전 새학년 준비 기간 또는 1학기 중에 받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학교 차원에서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내 연수를 적기에 실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운영 시기에 대한 문항에서는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운영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80.31%로 확인되었다.

<표 13>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 방식 (n=259)

문항 내용	올해 학생 생성 교육과정 관련 교내 연수를 최초로 받은 시기는 언제입니까?	
1~2월(새학년준비기간)	72명	27.80%
3~4월(학기 초반)	105명	40.54%
5~7월(학기 중후반)	57명	22.01%
여름방학 중 계획	1명	0.39%
2학기 및 겨울방학 계획	6명	2.32%
잘 모름	18명	6.95%

문항 내용	올해 학생 생성 교육과정 시수를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한 학기 중 특정 기간에 집중적 운영	130명	50.19%
1, 2학기로 나누어 특정 기간에 집중적 운영	78명	30.12%
연중 시수를 분산하여 여러 차례 운영	40명	15.44%
기타 의견 및 담임교사 아님	11명	4.25%

학교 교육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학생 생성 교육과정을 명시적으로 안내하는지 조사하였다. 먼저 학생들에게 마중물 활동을 하여 학생 생성 교육과정에 대한 1차시 이상의 명시적 안내를 하는지에 대한 문항에는 75.29%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명시적 안내를 하는지에 대한 문항에는 68.34%가 가정통신문, 학교 설명회, 공개 수업, 평가 통보 등의 방식으로 명시적 안내를 한다고 응답하였다. 31.66%에 해당하는 82명은 학생 생성 교육과정을 학부모에게 명시적으로 안내할 계획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학교나 교사가 학생 생성 교육과정을 학부모에게 직접 안내하지 않는다면 학부모는 교육 공동체의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학생 생성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워진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을 통한 학생의 성장을 학부모와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어떻게 관련 안내를 할 것인지에 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

<표 14>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 안내 (n=259)

문항 내용	학생들에게 학생 생성 교육과정이 무엇이며 어떻게 수행하는 것인지 마중물 활동(1차시 이상의 명시적 안내)을 운영하십니까?	
네(실시 또는 계획함)	195명	75.29%
아니오	64명	24.71%

문항 내용	귀교에서 3~6학년 학생의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의 주된 안내 방식은 무엇입니까?	
학교설명회를 통한 명시적 안내	107명	41.31%
가정통신문을 통한 명시적 안내	43명	16.60%
학생 생성 교육과정 학부모 공개 수업	10명	3.86%
과정중심평가 통보지에 학생 생성 교육과정 평가 반영	17명	6.56%
명시적 안내 계획 없음	82명	31.66%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 시 평가 계획을 하는지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형성평가 및 총괄평가에 대한 계획을 문서로 수립한다고 전체의 33.20%에 해당하는 인원이 응답하였다. 총괄평가만 문서로 계획을 수립한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전체의 27.03%였다. 평가 계획을 문서로 수립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전체의 35.91%였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평가 계획은 미수립은 평가 미실시로 이어질 수 있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은 기존의 활동 중심 수업과는 차별성이 있는 정책 과제로 학생들의 흥미를 존중함과 동시에 역량 증진에 목적을 둔다. 성취기준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기능을 잘 습득하였는지, 깊이 있는 이해를 하였는지에 대한 평가는 필수적이다. 평가 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평가 운영 방식에 관한 연구가 요구됨을 판단할 수 있다.

<표 15> 학생 생성 교육과정 평가 계획 수립 (n=259)

문항 내용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 시, 형성평가 및 총괄평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십니까?	
형성평가 및 총괄평가에 대한 계획을 문서로 수립함	86명	33.20%
총괄평가에 대한 계획만 문서로 수립함	70명	27.03%
평가 계획을 문서로 수립하지 않음	93명	35.91%
기타 및 답임 아님	10명	3.86%

2) 학생 생성 교육과정 예산 사용 실태

경상북도교육청은 2023학년도 학급 교육과정 운영 지원비 집행 지침 및 재배정 안내를 통하여 놀이수업 학기제, 프로젝트 학습, 학생 생성 교육과정 예산에 관한 상세한 안내를 하였다. 해당 예산은 학급 및 학생 수를 고려하여 학교별 총액으로

지원된다. 3~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예산은 학급당 30만원을 기본으로 1인당 9천원 내외의 추가 배정을 할 수 있다. 도내 전 초등학교의 3~6학년 학급은 학급당 약 30~50만원의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 예산을 목적사업비로 배정받는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비가 예산의 성격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실태를 조사하였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 예산을 학급에서 배정받은 시기를 묻는 문항에 82.62%가 1학기 중에 예산을 배정받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 중 55.98%는 3~4월 중에 신속하게 예산을 배정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산 사용 형태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학급 전체 주제와 관련된 물품 구입을 계획한다는 응답자가 135명이었고 전체의 52.12%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학생 팀별 주제와 관련된 물품을 구입한다는 응답자가 25.48%로 많았다. 개별 학생 주제와 관련된 물품 구입을 한다는 응답자는 10.04%였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은 학생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배움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성찰하는 교육과정으로 학생 개별의 흥미와 질문을 바탕으로 탐구를 진행하도록 권장한다. 현장에서는 개인 주제와 관련된 예산 사용보다는 팀 또는 학급 주제와 관련된 예산 사용이 더 보편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부 강사비로 예산을 지출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80.31%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 예산 사용은 대체로 적기에 배정되며 예산의 성격에 알맞게 학생들이 제시하는 주제를 탐구하기 위하여 관련 물품을 구입하는 데 지출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6> 학생 생성 교육과정 예산 사용 실태 (n=259)

문항 내용	올해 학생 생성 교육과정 예산 사용이 가능하도록 배정받은 시기는 언제입니까?	
3~4월	145명	55.98%
5~7월	69명	26.64%
2학기 중 배정 예정	33명	12.74%
기타 의견 및 담임교사 아님	12명	4.63%

문항 내용	올해 학생 생성 교육과정 예산의 주된 사용 계획은 어떠한 형태입니까?	
개별 학생 주제와 관련된 물품 구입	26명	10.04%
학생 팀별 주제와 관련된 물품 구입	66명	25.48%
학급 전체 주제와 관련된 물품 구입	135명	52.12%
학급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	20명	7.72%
기타 의견 및 담임교사 아님	12명	4.63%

문항 내용	학생 생성 교육과정 예산으로 외부 강사를 활용한 수업을 계획 및 운영하십니까?	
교과 수업에 외부강사 예산 배정	17명	6.56%
창의적 체험활동에 외부강사 예산 배정	21명	8.11%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외부강사 예산 배정	5명	1.93%
외부 강사를 활용한 수업을 개설하지 않음	208명	80.31%
기타:	8명	3.09%

3) 학생 생성 교육과정 자료집 활용 현황

경상북도교육청은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학생 생성 교육과정 Q&A(2022), 학생 생성 교육과정 워크북(2023) 등의 다양한 자료집을 현장에 배부하였다. 관련 자료집 활용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복수 응답을 허용하였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 Q&A(2022)를 학교로부터 제공 받아 활용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93명, 학생 생성 교육과정 워크북(2023)을 제공 받아 활용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33명이었다. 학교에서 자료집을 제공 받았으나 활용하지 않는 응답자는 모두 169명이었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 자료집이 현장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제작되었으나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에 관하여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

<표 17> 학생 생성 교육과정 자료집 활용 현황 (n=259)

문항 내용	2023학년도에 학교로부터 제공 받은 학생 생성 교육과정 자료집 활용 현황을 선택 바랍니다. (복수 선택 가능)	
학생 생성 교육과정 Q&A를 제공 받아 활용하고 있음	93명	30.00%
학생 생성 교육과정 Q&A를 제공 받았으나 활용하지 않고 있음	97명	31.29%
학생 생성 교육과정 워크북을 제공 받아 활용하고 있음	33명	10.65%
학생 생성 교육과정 워크북을 제공 받았으나 활용하지 않고 있음	72명	23.23%
기타 의견	15명	4.83%

학생 생성 교육과정 자료집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하였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 Q&A(2022)가 현장 운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지에 대하여 전체의

27.8%는 긍정적 인식을 보였고, 전체의 28.57%는 부정적 인식을 보였다. 부정적 응답을 한 응답자에게 해당 자료집의 문제점에 대하여 추가 설문을 하였다. 실제 운영 시 일어나는 문제와 동떨어진다고 89명이 응답하였으며 배포의 문제, 이론 중심의 설명, 불충분한 내용 등이 문제라는 응답도 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 워크북(2023)이 현장 운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지에 대하여 전체의 25.48%는 긍정적 인식을 보였고, 전체의 27.42%는 부정적 인식을 보였다. 부정적 응답을 선택한 경우 추가 설문을 하였고, 워크북이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가중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응답한 인원이 78명으로 가장 많았다. 배포의 문제, 작성 예시가 없는 점,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운영을 제한하는 문제 등에도 응답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표 18> 자료집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 (n=259)

문항 내용	<학생 생성 교육과정 Q&A>가 현장 운영에 실질적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9명	53명	113명	39명	35명
7.34%	20.46%	43.63%	15.06%	13.51%

문항 내용	위 문항에서 '그렇지 않다' 또는 '매우 그렇지 않다'를 선택하신 경우, <학생 생성 교육과정 Q&A>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선택 가능)	
배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음	46명	14.79%
실사례가 아닌 이론 중심의 설명을 함	37명	11.90%
실제 운영 시 일어나는 문제와 동떨어짐	89명	28.62%
내용이 불충분하여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음	35명	11.25%
기타 의견 작성 또는 해당 없을 시 .(온점) 입력	104명	33.44%

문항 내용	<학생 생성 교육과정 워크북>이 현장 운영에 실질적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5명	51명	122명	37명	34명
5.79%	19.69%	47.10%	14.29%	13.13%

문항 내용	위 문항에서 '그렇지 않다' 또는 '매우 그렇지 않다'를 선택하신 경우, <학생 생성 교육과정 워크북>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선택 가능)	
배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음	47명	15.72%
작성 예시를 제시하지 않았음	28명	9.36%
워크북 작성은 학생에게 학습적 부담을 줌	78명	26.09%
워크북 활용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운영을 제한함	38명	12.71%
기타 의견 작성 또는 해당 없을 시 .(온점) 입력	108명	36.12%

다. 운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

1) 교육 공동체에 관한 의견 수렴

학생 생성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적절한 주체에 대한 설문을 하였다. 230명의 응답자가 담임교사를 적절한 지도의 주체라고 응답하였다. 그 밖의 적절한 지도 주체로 40명의 응답자가 전담교사를, 53명의 응답자가 해당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꼽았다.

학부모의 학생 생성 교육과정 이해도 향상 방안에 대한 설문에는 학교설명회를 통한 안내가 적절하다고 154명이 응답하였고, 가정통신문을 통한 안내가 적절하다고 106명이 응답하였다.

<표 19> 학생 지도 주체에 관한 의견 (n=259)

문항 내용	학생 생성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적절한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선택 가능)	
담임 교사	230명	63.54%
전담 교사	40명	11.05%
비교과 교사	17명	4.70%
교감 또는 교장	8명	2.21%
학부모	10명	2.76%
해당 주체의 외부 전문가	53명	14.64%
기타 의견	4명	1.10%

문항 내용	학생 생성 교육과정에 대한 학부모 이해도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수 선택 가능)	
학교 설명회를 통한 안내	154명	44.38%
가정통신문을 통한 안내	106명	30.55%
학생 생성 교육과정 학부모 공개 수업	21명	6.05%
과정중심평가 통보지에 학생 생성교육과정 평가 반영	30명	8.65%
학생 생성교육과정 학부모 멘토 활동 장려	29명	8.36%
기타	7명	2.02%

2)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내용 선정 및 활동 형태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주제 선정과 교육과정의 연계성에 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교과 내 주제와 연계하여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116명이 응답하였고, 123명은 주제의 교과 연계성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교과 내 주제와 연계되지 않는 주제를 선정하는 방식은 기존 교육과정 운영 방식과 차별화된다.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밖에서 주제가 선정될 경우 어떻게 학생 생성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을지 체계적인 운영 방법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적절한 활동 형태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으며 복수 응답을 허용하였다. 학급별 주제를 선정하고 활동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자가 131명으로 가장 많았다. 여러 가지 모둠별 활동을 선호하는 응답자는 총 147명이었다. 개인별 주제를 선정하고 활동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자는 35명에 불과했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도입 취지는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배움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며 학생의 주도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주로 학급 및 모둠 활동의 형태가 선호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0> 내용 선정 방식 및 활동 형태 (n=259)

문항 내용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주제 선정은 교육과정과 어떤 연계성을 지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과 내 주제와 연계하여 선정함	116명	44.79%
교과 밖 주제와 연계하여 선정함	20명	7.72%
주제의 교과 연계성 여부는 중요하지 않음	123명	47.49%

문항 내용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에 적절한 활동 형태에 대해 선택하시거나 기타 의견을 작성해 주십시오. (복수 선택 가능)	
개인별 주제를 선정하고 활동하기	35명	10.77%
모둠을 먼저 조직하고 모둠 주제 선정하여 활동하기	60명	18.46%
개인별 주제를 먼저 들어보고 비슷한 주제를 통합하여 모둠별 활동하기	87명	26.77%
학급별 주제를 선정하고 활동하기	131명	40.31%
기타 의견	12명	3.69%

3) 학생 생성 교육과정 실행력 증진 방안

교사의 학생 생성 교육과정 실행력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문문을 하였다. 209명의 응답자가 교원의 업무 경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교육공동체 구성원 간의 협력과 지원, 다양한 연수 및 자료집 제공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있었으나 교원 업무 경감을 선택한 응답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교육과정 문해력 증진 연수가 필요하다고 선택한 응답자는 20명으로 가장 적었다.

<표 21> 교원 지원 방안 (n=259)

문항 내용	교사의 학생 생성 교육과정 실행력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선택 가능)	
교원 업무 경감	209명	42.57%
교감 및 교장의 관심과 지원	26명	5.30%
동교 교원 간의 협력	66명	13.44%
교육과정 문해력 증진 연수	20명	4.07%
학생 생성 교육과정 연수	58명	11.81%
학생 생성 교육과정 지원 자료집	51명	10.39%
학생 생성 교육과정 웹 자료실	49명	9.98%
기타	12명	2.44%

교원의 교육과정 문해력 향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개념기반 교육과정의 연관성에 대해 설문문을 하였다. 응답자의 54.44%에 해당하는 141명이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개념기반 교육과정의 연관성을 알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개념기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문항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14.29%만이 개념기반 교육과정을 연구하고 있거나 수업에 적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개념 기반 탐구학습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문항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11.59%만이 개념 기반 탐구학습을 연구하고 있거나 수업에 적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전이 가능한 학습은 개념과 일반화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개념 기반 교육과정과 개념 기반 탐구 학습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는 반드시 필요하다. 응답자들은 교육과정 문해력 연수가 필요하다고 반응하지 않았으나 학생 생성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실제적 교육과정 문해력은 부족한 실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운영 실행력 향상을 위한 연수로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학생 생성 교육과정 연수라고 응답한 인원이 129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양한 교육과정 연수도 운영 실행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학생 생성 교육과정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연수가 가장 선호되었다.

<표 22> 교원의 교육과정 문해력 향상 방안 (n=259)

문항 내용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개념 기반 교육과정의 연관성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잘 알고 있음	27명	10.42%
다소 알고 있음	91명	35.14%
알지 못함	141명	54.44%
문항 내용	Erickson 및 Lanning의 개념 기반 교육과정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개념 기반 교육과정을 연구하여 수업에 적용하고 있음	23명	8.88%
개념 기반 교육과정을 연구하고 있음	14명	5.41%
개념 기반 교육과정을 들어본 적이 있음	108명	41.70%
개념 기반 교육과정에 대해 알지 못함	114명	44.02%
문항 내용	Marschall 및 French의 개념 기반 탐구학습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개념 기반 탐구학습을 연구하여 수업에 적용하고 있음	19명	7.34%
개념 기반 탐구학습을 연구하고 있음	11명	4.25%
개념 기반 탐구학습을 들어본 적이 있음	108명	41.70%
개념 기반 탐구학습에 대해 알지 못함	121명	46.72%

문항 내용	교원의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 실행력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 개설 시 희망하시는 주제를 선택 바랍니다. (복수 선택 가능)	
학교수준 교육과정 운영의 이론과 실제	40명	11.20%
교사수준 교육과정 운영의 이론과 실제	83명	23.25%
개념기반 교육과정 운영의 이론과 실제	68명	19.05%
이해중심 교육과정 운영의 이론과 실제	25명	7.00%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의 이론과 실제	129명	36.13%
기타	12명	3.36%

4) 교육 정책 과제 간의 연계 방안

학생 생성 교육과정과 학교자율시간을 연계하여 운영할 때의 적절성에 대하여 81명의 응답자에 해당하는 31.27%가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부정적 입장을 지닌 응답자는 59명으로 전체의 22.78%였으며, 학교자율시간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인원은 23명으로 8.88%였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은 학교자율시간을 활용하여 운영하도록 이미 권장되고 있다. 부정적 입장을 밝힌 응답자들에게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까닭을 추가 설문하였다. 학교자율시간의 취지인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자율권이 침해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인원이 42명으로 가장 많았다.

<표 23> 학교자율시간과의 연계 방안 (n=259)

문항 내용	학교자율시간을 활용한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에 대한 입장을 선택 바랍니다.	
매우 적절하다	18명	6.95%
적절하다	63명	24.32%
보통이다	96명	37.07%
적절하지 않다	25명	9.65%
매우 적절하지 않다	34명	13.13%
학교자율시간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23명	8.88%

문항 내용	위 문항에서 '학교자유시간을 활용한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이 적절하지 않다 또는 매우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복수 선택 가능)	
학교자유시간의 취지인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자율권이 침해됨	42명	60.87%
학교자유시간은 학교장 개설 과목 또는 활동으로 운영함이 더 적합함	6명	8.70%
학생 생성 교육과정은 교과 수업 시간에 이뤄지는 것이 적합함	16명	23.19%
기타:	5명	7.25%

앞서 학생 생성 교육과정과 1-1-1 프로젝트 학습과 같은 다른 정책 과제와 차별성이 모호하다는 설문 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과정 시수 확보의 부담을 경감 하기 위해 학생 생성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하기 적절한 정책을 조사하였고, 1-1-1 프로젝트 학습이라고 응답한 인원이 157명으로 가장 많았다. 정책 간의 유연한 연계를 통하여 교육과정 시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4> 연계 운영 가능한 정책 (n=259)

문항 내용	교육과정 시수 확보의 부담을 경감 하기 위해 학생 생성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하기 적절한 정책을 선택 바랍니다. (복수 선택 가능)	
전환기 진로교육 학기제	30명	9.90%
학급 또는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	71명	23.43%
1-1-1 프로젝트 학습	157명	51.82%
에듀테크 활용 수업	30명	9.90%
기타:	15명	4.95%

3. 설문 조사 시사점

학생 생성 교육과정에 대한 교원의 인식 및 현장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설문 참여자의 80% 이상이 학생

생성 교육과정이 무엇이며 어떻게 실행하는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60% 이상이 정책 도입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과반수가 학생 생성 교육과정이 학생 주도성과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증진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본 정책 과제는 연수와 자료집을 지속적으로 현장에 제공함으로써 교원의 이해를 적절히 촉진해왔다. 연수 및 자료집을 개발하고 제공하여 교원이 이해와 공감을 증진하도록 도움을 준 교육청 차원의 지원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은 학급당 운영 예산이 배정되며 담임교사의 높은 운영 역량을 요구한다. 전체 응답자의 80% 이상이 학생 생성 교육과정이 교사의 교육과정 운영 부담을 가중한다고 응답했다. 70% 이상은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시수 확보가 어렵다고 인식함을 확인했다. 본 정책 과제를 학교자율시간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의견에 응답자의 약 30%가 동의하였다. 학교 생성 교육과정이 놀이 중심 교육과정, 1-1-1 프로젝트 학습과 서로 명확히 구분되는 차별성이 있다는 입장에는 과반수가 부정적 응답을 하였다. 학교 생성 교육과정과 연계 운영 가능한 정책으로는 1-1-1 프로젝트와 공동 교육과정 등이 있다고 응답을 하였다. 대다수의 응답자가 교사의 학교 생성 교육과정 실행력 증진에 가장 필요한 요건은 교원 업무 경감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연수와 자료집 제공 등이 교원이 정책 과제를 잘 이해하도록 돕는다면 업무 경감과 정책 과제 간의 연계 운영은 교육과정 운영의 부담을 감소시켜 실행력 증진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추론할 수 있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 공동체 내 다양한 구성원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확인할 수 있었다. 운영 활성화 방안은 담임교사가 개인적 차원에서 더욱 노력을 쏟도록 촉구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은 학교 차원에서 동료 교사 간의 협업을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학부모의 관심과 교감 및 교장의 지원 역시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청 차원의 지원 방안은 교원 업무 경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매 학년도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 계획 안내 시 학교 차원에서 교원 업무 경감 대책을 운영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명시한다면 운영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연수 및 자료집 개발은 정책 이해하도록 높이는 데 유용하며 업무 경감 대책 강구는 현장 교원들의 실행력 증진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연구 문제 2] 단위학교 차원의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4. 심층면담 개요

가. 심층면담 목적 및 대상

질적 연구는 총체적 맥락과 구체적 이해를 목표로 삼는다. 심층면담은 연구자가 지닌 입장과 편견의 한계를 넘어 면담 참여자로부터 배운 새로운 관점으로 현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 심층면담은 구체적 시공간에서 일어나는 미시적 대화로 구성되기 때문에 연구자의 준비에 따라 응답 수준이 달라지는 특징이 있기도 하다.

앞서 시행된 설문 조사를 분석 및 해석한 결과 학생 생성 교육과정이란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실현되기 위해 교사의 실행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과정 운영의 부담이나 시수 부족의 문제 등이 있음에도 학생 생성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하는 교사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일까?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다양한 교사들의 학생 생성 교육과정을 운영한 경험을 심층면담함으로써 설문 조사와 통계로는 발견하지 못한 의미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면담 참여자는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 경험이 있는 경북 교사 2명을 선정하고, 이와 유사한 특징을 지니는 개방형 탐구 학습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대구 교사 2명을 선정하였다. 면담 참여자가 경험을 구술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면담 참여자에게 다양한 운영 사례 공유를 부탁하여 연구 자료의 신빙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 밖에도 면담 참여자의 학교에서 발간한 자료집이나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심층면담 결과 해석에 활용하였다.

나. 심층면담 참여자 정보

A교사는 2020년부터 학생 주도성 신장을 위한 교사수준 교육과정 운영을 학교 차원에서 동료 교사들과 함께 시작하였다. 소규모 학교에서 2년 간 학생 생성 교육과정과 관련된 경험을 하였고, 대규모 학교에서 2년째 학생 생성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두 학교에서 학생 생성 교육과정을 운영한 풍부한 경험을 비교할 수 있었으며 학생 생성 교육과정에 대하여 높은 이해도를 지니고 있었다. 체계적인 학교

수준 교육과정 운영과 동료 교사 간의 협력, 관리자 리더십의 중요성에 대한 깊이 있는 응답을 들을 수 있었다. B교사는 교육학 박사 학위 소지자로 교육과정에 대한 수준 높은 식견이 있었다. 이해 중심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교사수준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 방식에 대한 철학을 지니고 있었다. 교사의 전문성이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B교사의 경험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C교사는 교육학 석사 과정 중에 있으며 개념기반 교육과정과 IB 교육에 관한 높은 이해를 지닌 교사였다. 대구의 초등학교에서 개방형 탐구를 매주 1시간 운영하고 있었고 교사의 신념과 지식이 교사수준 교육과정 운영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다. D교사는 2018년부터 대구의 IB 학교에서 근무하며 IB 교육에 대하여 높은 전문성을 구축하였다. 6학년 PYP 전시회를 개방형 탐구로 운영한 풍부한 경험이 있어서 개방형 탐구 운영에 관하여 깊이 있는 면담이 가능하였다.

<표 25> 면담 참여자 정보 및 면담 내용

구분	지역	학교	교직 경력	면담 내용
A	경북	○○초등학교 연구 학교	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수준 교육과정 운영 방식 ■ 교사수준 교육과정 운영 방식 ■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 방식 ■ 학생 주도성과 역량 신장 ■ 교육 공동체의 협력과 지원
B	경북	□□초등학교 연구 학교	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수준 교육과정 운영 방식 ■ 교사수준 교육과정 운영 방식 ■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 방식 ■ 학생 주도성과 역량 신장 ■ 교육 공동체의 협력과 지원
C	대구	△△초등학교 일반 학교	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수준 교육과정 운영 방식 ■ 교사수준 교육과정 운영 방식 ■ 학생 개별 탐구 운영 방식 ■ 학생 주도성과 역량 신장 ■ 교육 공동체의 협력과 지원 ■ 학습법(ATL) 활용
D	대구	◇◇초등학교 IB 월드 스쿨	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수준 교육과정 운영 방식 ■ 교사수준 교육과정 운영 방식 ■ IB PYP 전시회 운영 방식 ■ 학생 주도성과 역량 신장 ■ 교육 공동체의 협력과 지원 ■ 학습법(ATL) 활용

다. 심층면담 분석 방법

수집한 자료를 충실히 분석하기 위하여 모든 심층면담 내용을 전사하였다. 자료를 해석하기 위하여 1차 및 2차 코딩을 하였으며, 1차 코딩에서는 예견적 코딩을 통하여 예비조사로 연구 방향 및 과정, 결과를 예상해 보는 작업을 하였다. 자료마다 하나 이상의 코드를 부여하여 여러모로 분석한 후, 2차 코딩에서 범주와 개념을 도출하였다.

<표 26> 코딩 결과

상위 범주	하위 범주	개념
교육과정 운영 지원	학교수준 교육과정	체계화
	교사수준 교육과정	교육과정 프레임워크
학습자 지원	주도성	교사의 지원, 측정 지표, 목적
	역량	탐구 사이클, 지식·기능 교육
	학습법	학습법 안내
운영 활성화	운영 부담 해소	시수 확보, 업무담당자
	협력	교사 과부하, 학생 참여
	공유	가치 있는 학습
	정책	연계된 운영
	교사의 성장	성장 관점

5. 심층면담 결과

가. 교육과정 운영 지원

1) 학교수준 교육과정

학생 생성 교육과정이 현장에서 충실히 실행되는 데에 학교수준 교육과정 운영 방식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수집 자료에서 도출한 개념은 체계화이다.

- 체계화: 학교는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운영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으며 학교수준 교육과정의 체계적 운영은 교사가 학생 생성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명확하게 인식하고 실행력을 높이기끔 도움을 준다.

A교사

- 처음에는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원하는 학습 주제를 학습 현장에 가져오는 것 거기에만 초점을 뒀다면 22년도, 23년도에는 이제 교과 개념을 활용하는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에 초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초등학교에서 개념기반 탐구 학습도 이야기하고 프로젝트 학습을 할 때도 단순히 활동 중심적인 것에 대한 비판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식적인 부분, 교과 내용의 부분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여 교과형으로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하고 있는 학교라서 1학년은 놀이, 2학년은 프로젝트, 3·4는 생성, 5·6은 생성형 동아리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는 학교입니다. 저희 4학년은 지금 교과형을 운영하고 있고, 3학년은 주제형 생성, 그리고 개방형 이렇게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1학년과 2학년은 학생 생성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연습 단계, 3·4학년은 일부만 경험하는 단계, 5·6학년은 완벽하게 자기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운영하는 동아리형 단계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어떤 교육과정 프레임워크를 해보자라고 이제 학교 차원에서 제시한 건 올해가 처음이고 작년에는 스스로 이해 중심 교육과정을 썼습니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이 교육청 차원에서 활성화되고 사례들이 나왔을 때 다 이해 중심 교육과정 사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 거기에 맞춰서 이해 중심 교육과정에 기반했던 것이고 올해는 개념 기반 탐구 학습이 중요해지면서 이제 거기에 접목 시켜보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B교사

- 학생 생성 교육과정을 한다고 하면 우리 학교에서 생성이 뭔지에 대한 것부터 논의되고 난 이후에 나아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원래 2월에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거는 학교 안에서의 가장 큰 학교 목표를 설립하는 것을 해야 돼요. 목표와 관련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만들어 놓고는 이제 묻는 거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교육 활동이 그 질문에 적합한가 계속적으로 물어야 돼요.
- 그래서 제가 2월에 워크숍 할 때 분명한 목표점을 보여줬어요. (중략) 내가 어디에 가는지를 교사들이 분명하게 알고 그게 좋아 보이면, 그게 분명한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동의를 한다면 저는 교사들이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2) 교사수준 교육과정 운영 방식

- 교육과정 프레임워크: 높은 교육과정 문해력을 갖추고 교육과정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교사수준 교육과정을 설계해오던 교사에게는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이 별도의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전이를 중시하는 교육과정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 학습자가 교과 학습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전이로서의 학습 생성을 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B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미 학생 생성 교육과정 안에 설계 과정이 백워드 과정이기 때문에 백워드를 바탕으로 학생 생성 교육과정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백워드 교육과정이 생성 교육과정이라고 표명을 하고 있는 관점이 되는 거죠. · 작년에 6학년을 하면서 백워드 교육과정에서 탐구성이 부족해서 개념 기반을 도입하는 백워드 교육과정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질문도 남겨 놔어요. 생성 교육과정을 백워드 교육과정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더라고 하지만 이걸 나아갈 수 있는 어떤 프레임워크가 없기 때문에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백워드를 넣은 것 같아요. 저는 동의어로 생각하고 있어요. · 애들이 뭔가를 새로 만들어 내는 게 아니고 교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거를 찾아 나가고 자기만의 것을 해내야 된다는 부분은 전이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백워드와 연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되는 거예요.

나. 학습자 지원

1) 주도성

- 교사의 지원: 학생 주도성을 형성하기 위하여 교사의 적절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교사와 학생이 학습 공동체 속에서 상호작용할 때 학생 주도성 신장이 촉진된다는 면담 참여자 간의 공통된 관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이 지금 학습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능숙하게 지원하는 교사의 역량은 개방형 탐구가 잘 이루어지도록 한다.

B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가장 중요한 인물은 학생이 아니고 교사라고. 처음에는 학생이라고 했는데 이제 점점 교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 교사가 왜 중요하냐면 비고츠키가 이야기하는 GPD 쪽의 관점이 되는 거예요. 교

사의 분명한 지도가 없다면 학생이 생성해내지 못한다는 논리가 되거든요. 잘못된 오류가 뭐냐하면 킬 패트릭이 이야기하는 너무 지나친 흥미 중심으로 끝나버리는 솜사탕을 먹고 끝나버리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 나 혼자 해서 되는 게 아녜요. 초중고라는 아니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분명한 교육과정 위계성 속에 있는 거면, 교육과정이 있다면 교육 방법이라는 부분도 같이 함께 생각해야 해요. 배움의 공동체의 중요한 의도가 그거예요. 함께 생각하고 함께 같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애가 마지막에 제대로 된 학습자 주도성을 형성하는 거예요.

C교사

- 월요일 아침 1교시에 노는 아이가 없고. 처음엔 공책으로 하니까 눈에 잘 안 보였는데 패들렛을 제가 다 나눠줬거든요. 그럼 1번부터 25번까지 제 눈에 확 들어온단 말이죠. 근데 주말에도 애들이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그걸 막 올리더라구요. 조사했던 걸. 그때 조금 놀랐고.
- 이제 자기들이 패들렛으로 하니까 선생님 저 크롬북 필요해요라고 불편해 하면서 기기도 요구하고. 그리고 또 주제를 바꿔도 되냐고 묻고. 전 정말 터치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와서 요구를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아이 타임을 안 하면 되게 섭섭해하고. 너무 열심히 해서 나중에 머리 아파하거든요. 막 집중을 했나봐요. 그런 거 보면 조금 신기하죠.

■ 측정 지표: 학생이 직접 학습을 계획하는 모습에서 주도성을 관찰할 수 있다. 학생 주도성이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으로 얼마나 신장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측정 도구가 있다면 학생의 성장을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A교사

- 우리가 이 학생 생성 교육과정을 이야기할 때 주도성 신장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주도성 신장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는 쌤들끼리 모였을 때 나왔거든요. 어쨌든 간에 생성을 하고 나면 주도성이 신장됐는지 발현됐는지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구체적 지표도 없는 상황이고 단순히 말로 설명하는 단계일 뿐이라서. 배울 주제 정하고 교수 학습 활동을 조금 러프하게라도 학생들이 짜본다는 것 그냥 거기에서 일부 주도성이 신장되는 경험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 목적: 개방형 탐구의 목적은 초등학교에서 학습을 통하여 신장한 탐구 능력을 주도적으로 드러낼 기회를 주는 데 있다. 개방형 탐구는 높은 학생 주도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학습 접근 방법(Approaches to Learning)을 충분히 형성하지 않은 학생들은 탐구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학생은 개방형 탐구를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학습하는 방법을 학습할 필요성이 있다.

D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YP Exhibition은 Sharing the planet 유닛과 같이 하는데, 준비는 여름방학 전부터 시작했고 그건 12월인데 아마 2학기 내내 이걸 할 것 같아요. SDGs 지속 가능 17개 목표 그걸로 하거든요. 지금 일단 애들이 4학년 때, 5학년 때도 SDGs에 대해서 다뤄서 이걸 알고 있거든요. 열일곱 개 중에서 자기가 관심 있는 한 개, 두세 개든 주제를 찾아서 그걸 계속 찾도록 해요. · PYPX는 셀러브레이션(Celebration) 느낌인 것 같아요. 6년 동안 PYP 여행을 와서 여행 중간 과정에서 네가 이만큼 도전하고 탐구를 했는데 그 과정을 네가 드러내 보라. 축하해줄게. · 자율 탐구를 하라 해서 이걸 애들한테 던져주면 어떤 선생님 말로는 이것도 또 다른 종류의 폭력이라는 표현까지도 쓰시더라고요. 할 줄 모르는 애들은 이게 진짜 막막하거든요. PYPX가 셀러브레이션이다 이야기한 게, 애들이 1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 어떻게 탐구했고, ATL 이런 것도 다 학습이 되고, 내재화가 되면 애들이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탐구 능력으로 자기 탐구 주제를 정해서 이걸 하고. 나는 이렇게 6년 동안 배우고 이걸 했다 축하받는 느낌을 유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자율 탐구를 가르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주도성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주도성을 발휘할 기회를 주는 걸로 봐야 되거든요. · 내가 갖고 있는 ATL 은행에서 내가 필요할 때 꺼내서 사용하는 게, 발휘되는 게 주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2) 역량

- 탐구 사이클: 학생이 스스로 탐구의 사이클을 수행하는 것은 학생의 역량이 개방형 탐구에 드러나도록 한다. 자신의 질문으로부터 탐구 주제를 정하고 탐구 방법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학생은 주도적으로 자기 역량을 발휘하게 된다. 개방형 탐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탐구 사이클을 활용할 수 있다.

A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량이라는 단위가 너무 큰 것 같고 하나의 배운 과정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사이클을 애들이 좀 더 주도적으로 경험해요.

D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회 할 때는 ATL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ATL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역량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게 전시회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걸 드러내서 내 탐구를 해서 내 탐구 결과를 내겠다. · 그러면 전시회에서는 내가 갖고 있던 지식, 기능, 가치·태도 이걸 다 꼬집어내서 지금 쓰는 거예요. 찬양은 아닌데 나중에 애들 성찰 같은 거 돌아봐도, 중간 과정 지켜봐도, 진짜 6년 동안 한 학교 생활 다 나오거든요. 역량을 수행 능력으로 본다. 그러면 전시회에 역량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 지식·기능 교육: 개방형 탐구에서 학생이 역량을 발휘하려면 기본적 지식과 기능 교육이 밑거름되어야 한다. 기본적 지식과 기능 교육은 학생이 탐구 주제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사고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기반을 제공한다. 개방형 탐구는 높은 수준의 역량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식 및 기능 교육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 지식과 기능이 부족한 상태에서 개방형 탐구를 진행하면 비효율적 학습, 오개념 형성, 학습 자신감 저하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B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프로젝트 학습법이든 개념 기반 학습이든 UbD든 기본적인 지식과 기능이 형성되지 않고서는 역량으로 올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기초, 기본 지식을 완벽하게 갖추고 난 이후에 그 행위가 일어나야 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C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활동의 목표는 나의 흥미, 관심사를 찾고 이걸 조직하고, 목록화하고, 자료 찾고, 발표하는 이 과정을 한번 거쳐보는 거죠. 표현 능력을 기르는 것. 창의성을 기르는 것. 그 다음에 자료를 수집하는 능력, 정보 처리 능력. 이런 식으로 역량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3) 학습법

- 학습법 안내: 학생들의 개방형 탐구를 지도하는 교사들은 학습법을 명시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지도하였다. 학습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경험은 학생의 주도성과 역량 강화에 도움을 준다.

A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법을 명시적으로 가르치진 않지만 이런 어플을 사용할 거야 하는 차원에서 얘기하죠. 우리가 피피티 만들 때는 구글 프레젠테이션에 가서 만들 거야 이 정도까지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B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B의 ATL이라는 건 지식과 기능을 보충하기 위한 부분도 있지만, 생성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가장 기본적인 학습법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없잖아요. 무형적으로 시작되어서 교사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더 강하게 있다고 봐요.

C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들이 사춘기로 들어가고 또 자아도 스스로 세워야 하는 상황인데. 정말 너희의 것을 한번 찾아봐라는 의미였어요. (중략) 근데 처음엔 좀 못 찾는 애들도 많았거든요. 지금 계속하다 보니까 일단 뭔가 많이 찾아지긴 했어요. · 저는 프로젝트랑 완전 다르다고 생각해요. 개념 기반 탐구와도 또 다르죠. 이건 진짜 열린 탐구거든요. · 다른 친구 거 보고 배우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막 어떤 발표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외국 애들이 전시회라든지 대회 나가서 발표하는 그런 거. · 국어 매체 발표하는 시간에 가져와서 그걸 했거든요. 그 매체 발표 때도 되게 제대로 열심히 했어요. 애들이 PPT를 가지고. 근데 제가 이걸 좀 더 보완해서 2학기 때 발표했으면 좋겠다고 발표도 연습을 했죠. 교육과정 내용대로 PPT 모듬 끼리 만들고. 원그래프, 띠그래프 다 넣고 해서 그래프랑 융합하는 프로젝트 있잖아요. · 스포츠에 대해서도 내가 마인드맵을 그리고 좀 예를 들어줬죠. · 그러니까 역사를 찾는 친구도 생기고 음악을 하다가 피아노의 종류 이런 걸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매주 매주 정보를 찾은 거예요. 계속 계속 나와 관련시키라고 했어요. 내가 왜 이것을 좋아하는지 어떤 점에서 끌리는지. · ATL은 교사가 알고 애들이 자연스럽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애들이 난 지금 정보 처리 기능을 사용하고 있어, 이걸 알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다. 운영 활성화

1) 운영 부담 해소

- 시수 확보: 모든 면담 참가자들은 개방형 탐구를 운영하기에 학교 현장에는 이미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과제가 많음을 지적하였다. 개방형 탐구는 학생의 참여, 주도성, 상호 협력, 사고의 과정 등을 요구하기 때문에 교육과정 운영에 비교적 많은 시간 투입이 필요하다. 학교 차원에서 시수 확보를 위한 방안을 내놓거나 교사가 교과서 중심이 아닌 교육과정 중심의 탐구 수업 운영을 함으로써 운영 시수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A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음에 구상을 할 때 연구 부장님께서 창체 시수를 엄청 많이 늘려 놓으셨고 그리고 범교과를 다 지금 교과에 넣어 놓으셔서 창체 시수 확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 실제로 생성이다 보니까 중간에 돌발 상황도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중간에 그 계획을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좀 많이 발생해서 실제로 저희가 계산했던 15차시를 지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B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서를 버리면, 교육과정 중심으로 한다면 시간이 충분히 남아요. 15차시 안에서 백워드 발표까지 다 할 수 있어요. 교과서는 기초 자료로만, 지식 교육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이렇게 뽑아서.

D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솔직하게 말하면 시간이 없어요. 성취기준을 집어넣긴 집어넣었는데 안 다른 게 아직 있어요. 2학기 때 다루려고요. 시수 문제가 계속 걸려요. · 계속 죄짓는 느낌이에요. 예를 들면 1학기 대 100개의 성취기준을 다뤄야 된다. 그냥 이상적으로 말하면 IB 학교에서는 100개의 성취기준을 다 다루면서 개념 기반 탐구학습을 하라고. 개념 기반 탐구학습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 한 걸 가능한 것처럼 포장해야 해요.

- 핵심 교원: IB 학교의 경우 IB 교육과정 운영의 역량이 높은 교사가 코디네이터가 되어 학교 전체의 IB 교육을 폭넓게 지원한다. 코디네이터는 교육과정의 범위와

계열 속에서 IB 교육의 필수 요건이 잘 갖추어졌는지 확인하며 관련 행정 업무 처리, 교사와 학생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학교 현장에서 정책 과제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핵심 교원을 배치하면 운영의 성공을 촉진할 수 있다.

B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러니까 IB 학교처럼 코디가 있어야죠. 학교에 그런 코디도 없는 상황에서 코디 역할은 교감이 해야 돼요. 자꾸만 이렇게 주무자가, 교사가 이렇게 주무를 하는데 교사는 그렇게 큰 눈을 가질 수 없는 논리고. 코디가 교감이 돼야 한다는 논리는 코디가 완벽하게 교육과정을 다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D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런 학교가 있으려면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절대적이예요. 리더십 팀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중략) 전시회에서 PYPC는 총괄하는 사람이죠. · 업무분장표 있죠. 제 거는 딱 한 줄이예요. 6학년 관련 업무 및 전시회 운영 이거만 해요. 그만큼 다른 업무가 없다는 거예요. · 지원을 많이 받았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거의 일주일 안에 다 처리를 해줬어요. 품의를 올려주세요.

A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의 시스템이 마무리할 수 있게 도움을 좀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도 연구 부장님이 해결해 주시고. 저희는 업무전담팀이 있어서 일반 담임 선생님들께서는 업무에 대한 그런 부담은 없으신 편이죠. · 업무 전담팀이 업무를 다 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수업 나눔이랑 학년 협의회를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언제 언제 한다 이런 건 없지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간에는 거의 매일 같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 학교에 영상 담당자가 계셔서 프로젝트 러닝 페어할 때는 그걸 다 영상으로 만들어서 지금 다 탑재하고 있거든요.

2) 협력

- 교사 과부하: 교육 공동체의 협력 문화 확산은 학습의 효과성을 높이며 교육과정 운영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교사가 공동으로 교수·학습을 계획하는 학교는 학년 간, 과목 간 일관성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교사 간의 협력은 자원과 교수법 공유로 이어지며 전문성 향상을 통하여 교육과정 운영을 활성화

화한다. 탐구에 필요한 자원 제공, 탐구 계획 수립, 전문적 피드백 등의 역할을 여러 교육 주체들이 협력적으로 분담해야 한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실행을 위하여 교사는 더 많은 업무와 역량 부담할 수 밖에 없다. 교사가 느끼는 과부하를 적절하고 신속히 해결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 성과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D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B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수업, 학교 안에서만 뭘 도와주게 구성된 게 아니라 교사 연수라든지 네트워크 구성이라든지, My IB 안의 프로그램 리소스 센터라든지, 그러니까 교사가 수업하기 위한, 그러니까 교사가 평생 학습자로서 할 수 있게 도와주고 북돋아 주고 그런 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새로운 뭘 해보면 교실 안에서 교사 혼자 뭘 해야 되는데 IB는 협력할 기회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 그래서 인증 과정이나 그런 것들도 학교 안에서 협의하는 시간이나 그런 것들을 정해놓는 것 같아요. 학년 간 협의, IB 코디네이터와의 협의. 그런 걸 협력할 수 있는 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 저희 ◇◇초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에 1시간 동학년 협의를 공식적으로 하고 그때 PYP 코디네이터도 같이 하거든요. 그다음에 목요일에 한 시간은 학교 전체 다 모여요. 이 협의 시간에는 학교 행정업무 관련 전달을 최소화하고요. 60분이면 10분 내외로. 나머지는 장학을 해요. 수업 사례 속에 있는 방법이라든지. 동학년끼리는 비공식적으로 자주 모이고요. · 멘토 선생님도 정할 거예요. 희망한 선생님들을 받아서. 급식, 영양 선생님도 돼죠.

B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가 아이들이 만드는 생성에 대한 교과적인 지식이 없어서. 지식이 있다면 아이들을 거기에 맞게끔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는데. 우리가 스키마라고 하는 것도 애들이 가지고 있는 수준의 질문이 아니고 더 높은 차원의 수준으로 질문을 해줘야 돼죠. · 특히 초등이라서 중등이면 어차피 전문 분야가 되어서 충분히 코칭을 할 수 있는데. 교사는 얼마나 힘들어 해야 되는가. 그 모든 걸 다 만들어줘야 되는. 그래서 지금 IB에서도 그 부분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PYP Exhibition을 하는데 아니면 과정에서 전문가를 초청하는데 그 전문가가 과연 우리 학교 안에 얼마나 존재할 수 있는가, 찾아올 수 있는지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서.

- 학생 참여: 교육과정 개발을 위하여 교사와 학생이 협력하는 상호 존중의 문화는 학습 공동체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학생이 학습 계획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조성의 밑바탕이 될 수 있다.

D교사
<p>· PYP 전시회 세팅을 해놓고 6학년이 5학년을 먼저 불러요. 애들이 5학년 때 봤잖아요. 전시회를 2학기 때 한다는 걸 알고, SDGs 한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 뭘 하나면 졸업할 때 졸업생들한테 신청을 받아요. 전시회 멘토를. 졸업하고 방학 때 연락할 건데 후배들을 위해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좀 해줄 때 연락할 테니 네가 와라. 그걸 작년하고 재작년 졸업생한테 연락처를 다 받아놨더라고요. 그래서 8월에 졸업생 20명이 지금 재학생하고 하거든요.</p>

3) 공유

- 가치 있는 학습: 학생 생성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학생이 제작한 결과물을 다양한 교육 공동체 구성원과 공유하는 데는 몇 가지 이점이 있다. 누구나 접근 가능한 온라인 사이트에 실패한 결과물을 공유하고 싶은 교사나 학생은 없다. 학습 결과의 공유 문화나 제도가 있는 학교에서는 학습 과정이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지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온라인 사이트나 러닝 페어 등으로 학습 결과를 공유하면 교사와 학생의 성취감을 높일 수 있다. 공유를 통하여 타인의 관심과 피드백을 받게 되면 교사와 학생은 학습을 더욱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다.

A교사
<p>· 학생 생성 교육과정 구글 사이트도 구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수업했던 결과물들, 과정들을 다 탑재합니다. 학부모들도 다 볼 수 있고 일반인들도 다 볼 수 있어요.</p> <p>· 학교 소식지라고 해서 월별로 학교에서 프로젝트 했던 것들이나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카드 뉴스 형식으로 지금 다 외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p> <p>· 학부모 공개 수업 기간은 아니지만 러닝 페어 결과를 다 같이 나누고 싶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부모를 초청해서 러닝 페어를 운영했습니다.</p>

4) 정책

- 연계된 운영: 국가와 지역 교육청에서 학교로 하달하는 각종 정책 과제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부담을 준다. 정책 과제 간의 유사성을 분석하여 정책 과제를 연계하면 효율적 운영이 가능해진다. 학교가 정책 과제를 통합적, 유기적으로 운영하면 교사가 의무 운영 규정을 준수하여 정책 과제를 운영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유사한 정책 간의 연계 운영은 학교 교육과정을 일관되게 유지 시키며 교사는 예산 및 학습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C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제동행 34차시를 꼭 해야 하고 예산도 나와요. 어차피 이것도 짐이에요. 뭘 하지 막 생각을 해야 하거든요. 이걸 잘하면 진짜 교실이 잘 나가요. · 월요일 1교시는 그냥 아이 타임으로 박아 놓는 거죠. 그리고 금요일 마지막 시간은 학급 회의거든요.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A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희 4학년 같은 경우에 일단 15차시 프로젝트를 지금 벌써 3개를 했기 때문에 (중략) 저희 4학년 같은 경우에는 한 개는 그냥 일반 프로젝트 학습을 진행하고, 나머지 2개는 학생 생성형으로 프로젝트를 운영했거든요. 생성형으로 한 건 학생의 주도적인 역할이 많이 들어갔다고 판단하고 있고 프로젝트로 한 건 교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서 진행한 프로젝트입니다. · 에듀테크 활용을 학교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5·6학년은 1인 1 크롬북, 3·4학년은 1인 1 태블릿을 가지고 있어서. 학기 초에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협업 툴이라든지 그런 에듀테크 사용 방법을 강조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5) 교사의 성장

- 성장 관점: 마인드 셋이란 개인이 지닌 사고의 패턴이다. 개인의 신념, 태도, 사고 습관을 반영하며 문제 상황에 반응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성장관점(Growth Mindset)을 지닌 교사는 노력과 학습을 통해 능력이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다.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포착하기 때문에 어려운 과제에 기꺼이 도전한다. 성장관점이란 배움과 성장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 교사가 정책 과제 수행에 기울인 노력이나 활용한 전략을 인정해주는 문화와 제도는 교사의 성장 관점을 강화한다.

B교사

· 백워드 교육과정에서는 평가를 되게 많이 생각해요. 수업을 평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 많이 포커스 하는데 중요한 건 스키마를 못 만들어 내는 거죠. 그러니까 탐구라는 요소가 되게 약한 부분이 생겨요. 물론 백워드 속에 질문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탐구적인 요소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지만 계속 설계를 해봤을 때 탐구적인 요소가 너무 약하다는 느낌을 되게 강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CBCI를 공부해서 백워드에다가 CBCI를 접목 하는 관점이 되는 부분이죠.

C교사

· 외국인 학교에 갔을 때, 그분들이 PYP Exhibition 자료를 보여주는데 진짜 그냥 러프한 거예요. 그냥 꼬적꼬적거린 걸 했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착안해서 첫날에는 너희 관심 있는 걸 자기 이름 적고 다 적어라고 해서 다 적었어요. 그 다음에 탐 5를 뽑아. 가족, 아이돌. 이것도 처음에는 어려워해요. 축구, 야구, 배구, 그럼 저는 또 유목화를 시켜요. 스포츠로 해보는 게 어떨까?
 · 저도 이걸 왜 했냐하면 PYP 전시회를 보러 갔는데 보이는 거예요. 무임승차가 있는 팀, 아닌 팀. 그리고 교사가 다 해준 것 같은 팀도 보이는 거예요. 질문을 했더니 애가 뭔지를 몰라요. 혼합물의 분류 원리? (중략) 그때 약간 이거 역시 보여주기식 하고 있구나. 너무 쌤들이 힘들었을 것 같고 애들은 재미있었겠지만 그게 의미가 있나.

D교사

· 연수는 너무 많아서. 일단 IBO 워크숍 온라인으로 2박 3일. 카테고리 3 ATL 들었고. 이번 여름 방학 때도 기회가 있어서. (중략) 그러니까 원하면 다 듣게 해줘요. 제주도의 국제학교 방문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다른 국제학교하고. 4~5월에 국제학교 PYP 전시회를 하잖아요. 그런 국제학교들로 희망자를 받아서 나눠서 갔어요. 올해 2월에 인사 발표하고 바로 며칠 후에 워크숍 잡혀서 외국인 학교도 갔다 왔어요. PYP 코디네이터가 다른 IB학교와 네트워킹을 해서. 국제학교나 외국인학교는 학기 중이니까 수업 참관을 하고 직접 교실을 보고 좋았어요.

IV. 결론

본 연구는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찰하여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론적 배경에 관한 문헌 연구와 교원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 및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결론에서 제시하고자 하며, 세부 항목은 체크리스트(Checklist)를 개발하여 기술하였다. 체크리스트는 운영의 방향성과 절차를 안내하기 위한 용도이며 가이드라인(Guideline)과 같은 역할을 한다. 운영 기준(Standard)이 통일성과 책무성을 내포하는 반면 체크리스트는 운영의 명확성과 자율성을 강조한다. 세부 항목은 교육청 차원과 학교 차원의 운영 지원 방안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의 결론은 아래와 같다.

1.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교육 목적을 교육 공동체와 공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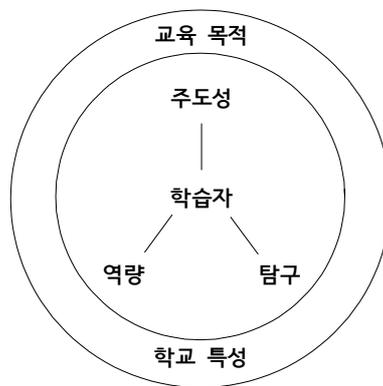
학생 생성 교육과정은 경상북도교육청 교육 공동체의 고유한 철학과 지역수준 교육과정의 방향성을 담아낸 정책 과제이다. 학교수준 교육과정이 단위학교의 맥락에서 자율성을 발휘하도록 복돋우며, 교사수준 교육과정 속에 교사의 교육과정 운영 전문성이 녹아들도록 한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은 학생의 배움의 주인으로 세우는 교육의 철학이 학교 현장에서 실현되게 하여 학생의 역량 증진을 도모한다.

정책 과제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철학을 교육 공동체와 공유하는 과정은 필수적이다. 교육 공동체 구성원들이 교육의 철학에 공감할 때 기꺼이 도전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감내할 수 있다. 경상북도 초등학교 교육 중점에 기반하여 학생 생성 교육과정이 공유할 수 있는 교육 목적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교육 목적(예시)

경상북도교육청의 모든 초등학교는 주도적이며 역량 있는 어린이를 기르고 지속 가능한 삶의 태도를 키우기 위하여 학생 생성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교육의 목적 외에도 교육 공동체는 학생 생성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인간상을 공유하여 학습자에게 기대하는 바를 분명히 해야 한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은 교육 목적과 학교 특성을 바탕으로 운영된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사람, 역량을 발휘하는 사람, 지속적으로 탐구하는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기대하는 인간상을 설정한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교육 목적과 기대하는 인간상의 관계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림 6]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교육 목적과 인간상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도교육청은 학교와 교사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교육 공동체 구성원들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통합하며 교육 정책을 보완해나가는 데는 다양한 이점이 있다. 민주적 의사 결정은 학교와 교사들의 의견을 포용하여 교육 공동체의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준다. 도교육청은 공청회, 포럼, 설문 조사 등을 통하여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교육 목적을 교육 공동체와 공유할 수 있다.

학교 역시 학교 공동체 구성원과 우리 학교에서 지향하는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운영 목적을 공유해야 한다. 학교 구성원들이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학생 생성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면 교육 목적은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교장 및 교감은 학생 생성 교육과정을 직접 운영하는 주체는 아니지만 학교의 리더로서 정책 과제의 방향과 목표를 이해해야 한다. 교장 및 교감은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갖추고 교사와 교수·학습 활동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 과제를 학부모와 학생에게 명시적으로 안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은 도내 전 초등학교의 3~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제적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하는 중요 정책 과제이다. 학부모가 자녀의 학습 목적과 방향성을 이해하게 되면 교육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학교 교육에 협력을 할 수 있게 된다. 삶으로 전이되는 학습의 기초는 학교와 가정의 협력 관계에 기반한다. 자신의 학습 목적과 방향성을 이해하는 학생은 높은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고, 이는 학습 성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은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교육 목적을 공유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체크리스트를 활용할 수 있다.

<표 27> 목적 부문 체크리스트

코드	내용
목적1	경상북도교육청은 교육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교육 목적과 방향성을 공유한다.
목적1-가	학교는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교육 목적과 방향성 등을 학교 공동체 구성원과 공유한다.
목적1-나	교감, 교장은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교육 목적과 방향성을 이해하기 위한 연수에 참여한다.

2. 학교는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충실히 수립한다.

경상북도교육청은 ‘2023학년도「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 계획 안내’에서 ‘학교별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 계획 수립’을 행정 사항으로 강조하였다. 철저한 운영 계획 수립은 학교의 정책 과제 운영 책무성을 높여 현장에서의 운영 활성화를 촉진한다. 학교 구성원들의 협력과 소통은 단위학교의 상황에 적합한 운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구성원들의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수렴하고 통합하면 예상되는 운영의 문제점에 대하여 학교 차원의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은 학교수준 교육과정의 일부이며 운영 계획 수립을 통하여 단위학교의 맥락을 고려한 운영 목적, 방향, 방법 등의 설정은 학생 생성 교육과정에 투입된 자원이 교육의 성과로 이어지게 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 시에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할 사항을 아래의 체크리스트와 같이 제안할 수 있다.

<표 28> 교육과정 부문 체크리스트

코드	내용
교육과정2	경상북도교육청은 단위학교가 협력과 소통을 통하여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한다.
교육과정2-가	학교는 협력과 소통을 통하여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교사는 이에 의거하여 교수·학습 활동을 실행한다.
교육과정2-나	학교는 새학기 준비 기간 또는 새학년 초에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 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협의를 실시한다.
교육과정2-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설계 방식 및 교수 방식이 동학년 또는 학년군 간에 통일성을 갖춤으로써 교사 간의 협력이 가능하도록 한다.
교육과정2-라	교사와 학생이 협력하여 학생 생성 교육과정을 설계하며, 학생의 질문과 문제 제시가 학습의 출발점이 된다.
교육과정2-마	학생 생성 교육과정은 교과 성취기준을 반영하여 교과 주제 연계형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성취기준을 통합·축약·재구조화 할 수 있다.
교육과정2-바	학생 생성 교육과정은 교사 주제 제시형 및 학생 주제 생성형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성취기준을 생성하고 교육과정 설계안에 명시한다.
교육과정2-사	학생 생성 교육과정은 평가 계획 및 실시를 포함하며 평가 결과는 생활기록부지표의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평가란에 기재될 수 있다.
교육과정2-아	학생 생성 교육과정을 통하여 학생이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를 배양하여 총체적 역량을 갖추게 한다.

3.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네트워크란 기관, 단체, 개인 등이 상호 긴밀히 연결된 협력 구조를 의미한다. 도교육청 차원에서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면 도교육청과 학교, 교사 모두가 정책 과제를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정책 과제를 지원하는 네트워크가 약할 때 인적, 물적 자원을 탐색하고 선정하는 데 필요한 시간, 비용, 인력 등은 증가하며 정책 과제의 운영 결과는 불확실해진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은 선도(先導)적인 교육과정이므로 새롭고 낯선 자원과 정보가 필요하므로 강력한 네트워크 구축은 필수적이다.

도교육청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학교를 지원하는 좋은 방안은 학생 생성 교육과정 컨설턴트를 제공하는 것이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컨설턴트는 학교를 물적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단위학교를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컨설턴트는 연수 강사와 달리 학교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교사 역량 강화를

증진할 수 있다. 컨설턴트는 학생의 학습 경험을 모니터링하며 개선과 발전을 위한 피드백 및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학교는 학생 생성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정책 과제를 운영하는 업무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 업무 담당자가 정책을 충분히 이해하고 교육과정 문해력을 갖추고 있다면 동료 교사들을 지원하여 정책 과제 운영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 업무 담당자는 동료 교사들이 정책 과제 운영 중에 마주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함께 의사소통하며 해결책을 모색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교사들의 신뢰와 협력을 끌어낼 수 있다.

<표 29> 네트워크 부문 체크리스트

코드	내용
네트워크3	경상북도교육청은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학교와 교사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네트워크3-가	학생 생성 교육과정에 대한 문해력과 실행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시·군 또는 도 단위 컨설턴트를 양성한다.
네트워크3-나	단위학교는 시·군 또는 도 단위 컨설턴트를 최소 1명 이상 배정받아 학기별 최소 1회 이상 연수 및 컨설팅을 요청한다.
네트워크3-다	학교는 학생 생성 교육과정에 대한 문해력과 실행 경험을 갖춘 교사를 업무 담당자로 지정한다.

4. 학교는 지속 가능한 운영 시스템을 구축한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인적, 물적 자원의 연결성을 증진함을 의미한다면, 지속 가능한 운영 시스템 구축은 단위학교가 관련 자원을 축적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을 의미한다. 단위학교는 학교수준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생산된 각종 교육 자료를 보관하여 추후 참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교육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 시스템의 구축은 단위학교의 특성에 맞게 이뤄져야 하며 학교 간 시스템을 상호 공유하여 자원 활용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도 있다.

<표 30> 시스템 부문 체크리스트

코드	내용
시스템4	경상북도교육청은 학교와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시스템4-가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설계안은 종이 및 전자 문서의 형태로 보관되어 익년도 운영을 지원한다.
시스템4-나	학교는 교사와 학생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형 아카이브를 구축한다.

5. 학교는 효율적이며 투명한 예산 관리와 사용을 책임진다.

경상북도교육청은 '2023학년도 학급 교육과정 운영 지원비 집행 지침 및 재배정 안내'에서 학생 생성 교육과정 예산 운영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현행 지침은 학생 생성 교육과정 예산의 개산급 지급을 허용하여 교원 업무 경감에 기여한다. 다만 학교가 예산을 조기에 교사에게 배정한다면 교사는 정책 과제를 적기에 더욱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비는 학생 주도적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경비로서 일회적 행사가 아닌 다양한 체험활동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은 정규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므로 해당 운영비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하지 않도록 명확한 안내가 필요하다.

<표 31> 예산 부문 체크리스트

코드	내용
예산5	경상북도교육청은 학교 및 교사의 자율적 예산 집행을 보장하고 예산이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비 집행 지침을 명확히 제공한다.
예산5-가	학교는 교육청으로부터 학생 생성 교육과정 예산을 편성 받는 즉시 학급 교육과정 운영비로 배정한다.
예산5-나	학교는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비 집행 지침을 준수하여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한다.
예산5-다	학교는 행정실의 협조를 통하여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비를 개산급으로 지급하여 교원 업무 경감을 지원한다.
예산5-라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비의 성격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고 일회성 행사 또는 방과후학교 운영 등에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다.

6.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업무 경감을 보장한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은 교사에게 높은 수준 운영 역량을 요구한다. 그러나 관련 선도학교 및 연구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들은 학생 생성 교육과정 교사 역량 강화 연수 운영비를 별도로 편성 받지 않는다. 2023년 2월 실시된 「학생 생성 교육과정 지원단」 연수는 학교 및 교사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인적 인프라의 기초가 되었다. 도교육청은 단위학교로 학생 생성 교육과정 연수 및 컨설팅 운영에 사용할 수 있는 목적사업비를 배정하여 실제적 교사 역량 강화를 촉진할 수 있다. 학교는 학급 교육과정 운영비 외에 학생 생성 교육과정 연수 운영비를 투입할 수 있다. 교사의 역량 강화는 예산, 시간, 인력 등 적절한 자원의 투입으로 실현된다.

업무 경감은 현장 교사들이 원하는 가장 강력한 교사 지원의 방안이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교사가 수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먼저 구축되어야 한다. 학교에 업무전담팀을 배치할 수 있다면 담임교사의 행정 업무를 대폭 경감할 수 있다. 소규모 학교는 업무전담팀 배치가 어려우므로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업무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업무담당자는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 교구재 및 웹 기반 자료 등을 교사에게 제공하여 각 교사가 교육 자원 확보를 위하여 사용하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다. 예컨대 업무담당자는 학생 생성 교육과정 자료집을 적시에 배부하거나 교사들의 질문을 수합 후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하며 업무 경감을 도울 수 있다.

<표 32> 교사지원 부문 체크리스트

코드	내용
교사지원6	경상북도교육청은 학생 생성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운영 역량 강화 및 업무 경감을 위하여 자원을 투입한다.
교사지원6-가	학교는 학급 교육과정 운영비와 별도로 교사 역량 강화와 업무 경감을 위한 예산을 투입한다.
교사지원6-나	학교는 학생 생성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모든 교사에게 관련 연수에 공식적으로 적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교사지원6-다	학교는 업무전담팀을 편성하거나 업무 담당자의 역할을 명료화하여 학생 생성 교육과정으로 인한 교사의 업무 부하를 줄인다.
교사지원6-라	학생 생성 교육과정 업무 담당자가 운영 지원에 관련된 업무를 중점적으로 맡도록 하며 여타 업무량이 과도하지 않도록 한다.

교사지원6-마	학교는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 기간 중 각종 행사 및 행정적 회의를 자제하고 교원의 업무 경감에 노력한다.
교사지원6-바	학습 성과 발표 및 결과물 공유의 방식은 동학년 또는 학년군별로 교사와 학생의 자율적 협의에 따른다.
교사지원7-사	학교는 연 1회 이상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학기 또는 익년도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에 이를 활용한다.

7. 학생의 유의미한 학습 경험을 지원한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은 도내 전 초등학교에 목적사업비를 투입하는 경상북도교육청의 주요 정책 과제이다. 경상북도교육청은 학생 생성 교육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이 실제로 주도성, 역량, 지속적 탐구 능력 등을 키우고 있는지 정책 과제 운영의 효과성을 입증해야 한다. 기초학력 진단평가는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효과성을 입증하는 도구가 될 수 없다. 도교육청 차원의 연구와 개발을 통하여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효과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학교 차원에서는 학교의 다양한 자원을 구축할 때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을 염두에 두는 것이 학생의 유의미한 학습을 지원하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표 33> 시스템 부문 체크리스트

코드	내용
학생지원7	경상북도교육청은 학생 생성 교육과정에 참여한 학생이 유의미한 학습을 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
학생지원7-가	학교는 학교 도서관 도서 구입 시 학생 생성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한다.
학생지원7-나	학교는 학생 1인당 1대 이상의 멀티미디어 기기(태블릿PC, 크롬북 등)를 확보한다.
학생지원7-다	학교 과학실은 교구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물품 구입 시 학생 생성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한다.
학생지원7-라	학교는 특수 교육 대상 학생이 학생 생성 교육과정을 통하여 유의미한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
학생지원7-마	학교는 학생의 기초·기본 학력 보장을 바탕으로 학생 생성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학생지원7-바	학교는 연 1회 이상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학기 또는 익년도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에 이를 활용한다.

8. 교수방법은 탐구와 전이에 기반한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은 학생이 질문과 문제 상황을 제기하는 개방형 탐구이다. 탐구 기반 학습은 학생의 성찰과 행동을 순환시키는 특징이 있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은 귀납적 탐구를 통하여 개념과 일반화를 도출하는 전이 가능한 학습 형태를 추구한다.

교사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교는 전학년 또는 학년(군) 단위로 탐구 모델을 선정하거나 프로젝트 학습을 활용하여 학생 생성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사들은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설계와 실행의 과정에서 공통 언어(Common language)를 사용하여 원활한 논의를 할 수 있다. 공통 언어 사용은 교사들이 경험과 지식을 활발히 공유하도록 촉진한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운영 성격에 부합하는 교수방법을 명시하는 것은 교수방법 선택에 있어서 효율성을 증진하며 교사의 정책 과제 운영 전문성을 향상시킨다.

<표 34> 교수방법 부문 체크리스트

코드	내용
교수방법8	학생 생성 교육과정은 교사와 학생이 협력하는 개방형 탐구이며 전이 가능한 학습을 추구한다.
교수방법8-가	학생 생성 교육과정은 학생이 질문과 문제 상황을 제기하는 개방형 탐구이다.
교수방법8-나	학생 생성 교육과정은 성찰과 행동이 순환되는 귀납적 탐구 기반 학습을 지향한다.
교수방법8-다	학교 특성을 고려하여 전학년 또는 학년(군) 단위로 탐구 모델을 선정하거나 프로젝트 학습을 활용한다.
교수방법8-라	학생 생성 교육과정에서 '생성'이란 학습의 전이(transfer)를 의미한다.
교수방법8-마	학교수준 교육과정은 지식, 기능, 가치·태도 학습을 통하여 개념 형성과 일반화 도출에 이르는 전이 가능한 학습 형태를 추구한다.
교수방법8-바	학생 생성 교육과정은 주제를 제시하는 주체와 교과 연계 정도에 따라 교과 주제 연계형, 교사 주제 제시형, 학생 주제 생성형 등으로 운영될 수 있으나 각 범주는 연속체 상에 존재한다.
교수방법8-사	교사는 사고의 스캐폴딩을 적절히 촉진하고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9. 학생은 학습방법을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활용한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에서 학생은 자신에게 필요한 학습방법을 선택하고 활용함으로써 초교과적인 역량을 효과적으로 함양할 수 있다. 교사와 학생은 협력적으로 학습방법을 선정할 수 있으며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단원 설계안에 학습방법을 명시하여 실제적으로 학습 기술을 활용하고 익힐 수 있도록 한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은 학생의 주도적인 탐구를 지향하기 때문에 학생은 자신의 학습에 대하여 높은 윤리적 책무성을 가지게 된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을 윤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지적재산권과 정보통신윤리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윤리적인 학습 경험을 통하여 학생들은 정직과 신뢰의 가치를 배울 수 있다.

<표 35> 학습방법 부문 체크리스트

코드	내용
학습방법9	학습방법이란 학습에 필요한 기술을 의미하며, 학생은 학생 생성 교육과정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학습방법을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활용한다.
학습방법9-가	교사와 학생은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학습방법을 교육과정 단원 설계안에 명시한다.
학습방법9-나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학습방법은 목표 설정, 이해하며 읽기, 효과적 말하기와 쓰기, 문제 해결, 협업과 같은 학습 기술이며 학교의 여건에 맞게 수정하거나 새롭게 선정할 수 있다.
학습방법9-다	학생은 지적재산권, 정보통신윤리 등을 지키며 학습한다.

본질적으로 학생 생성 교육과정 ‘사막에 길’을 내며 배움을 길을 걸어가는 여정과도 같아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모호함을 현장에 주고 있다. 교사들은 다양한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있으며, 사례가 축적되며 운영방법이 체계화되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 생성 교육과정은 연간 15차시 내외의 수업 시수를 활용하도록 권장되기 때문에 오류 성찰을 통한 정책 발전에 치중하는 경향은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체계적 운영 방안을 체크리스트(Checklist)로 개발 및 배포하여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할 수 있다.

V. 제언

본 연구의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도교육청은 교육 공동체의 의견을 통합하여 정책 과제를 보완해야 한다. 공청회, 설문 조사 등으로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운영 방안을 협력적으로 발전시킬 때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가 증진된다. 교장 및 교감이 정책 과제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연수를 제공하여 학교의 리더가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현행 지침에서 개산급 허용으로 교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업무를 효율화하였다. 또한 학생 생성 교육과정 연수 지원단 운영과 자료집 개발을 통하여 인적·물적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구축하였다. 이러한 기초를 유지하고, 단위학교가 연수 지원단의 연수 및 컨설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하여 교원의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 역량 강화를 실현할 수 있다. 단위학교가 활용할 수 있는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기본적 운영 방식을 체크리스트로 개발 및 제공하면 교사는 운영 방식 체계화에 드는 노력을 줄일 수 있고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에 더욱 전념할 수 있다.

둘째, 학교는 교사의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면 학교수준 교육과정의 수준에서 실제적 수업 시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불필요한 행사의 파악과 배제,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 확보 방안 등을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명시해야 한다. 업무전담팀을 배치하면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뿐만 아니라 학교수준 교육과정 운영 전반을 지원할 수 있으나 학교의 규모와 특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 지원의 역량이 있는 자를 업무담당자로 지정하고 정책 과제 운영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게 하면 교사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학교는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활동 자료를 축적하여 지속 가능한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도교육청과 학교는 학생 생성 교육과정을 교육 공동체 구성원에게 명시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언어는 문화의 씨앗이다. 정책 과제명을 정확히 사용하여 소통하며 학생, 학부모, 교사가 운영의 과정과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학생 생성 교육과정은 경상북도의 훌륭한 교육 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경상북도교육청. (2023). **2023 주요업무 계획**. 경북: 경상북도교육청.
- 경상북도교육청. (2023). **2023학년도 학급 교육과정 운영 지원비 집행 지침 및 재배정안내**. 경북: 경상북도교육청.
- 경상북도교육청. (2023). **교과서에 없는 배움**. 경북: 경상북도교육청.
- 경상북도교육청. (2022). **학생 생성 교육 과정 Q&A**. 경북: 경상북도교육청.
- 교육부. (2022a).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세종: 교육부.
- 교육부. (2022b). **2022 개정교육과정 질의·응답 자료**. 세종: 교육부. 22
- 권효숙, 배은주, 신혜숙, 전가일, 전은희, 전현욱. (2022). **질적 연구 과정별 접근**. 서울: 학지사.
- 김규대. (2023). **송도 채드워의 학교 문화와 IB 교육의 실현**. 경북대학교사범대학미래교육센터. https://blog.naver.com/knu_teachers/에서 2023. 6. 30. 검출.
- 김대석, 박우식, 성정민. (2022). **쉽게 풀어 쓴 교육과정과 수업의 이해와 실천**. 서울: 박영사.
- 온정덕. (2022). **역량과 주도성을 기르는 2022 개정 교과 교육과정**. 서울교육, 249. <https://webzine-serii.re.kr/>에서 2023. 4. 1. 검출.
- 이찬승. (2021). **내 자녀·학생 자기주도(조절)학습 능력 키우기 A to Z(상)**. 교육을 바꾸는사람들. <https://21erick.org/>에서 2023. 4. 1. 검출.
- 이광우, 임유나. (2023). **2022 개정 교육과정 '학교자율시간'의 성격 및 편성·운영에 관한 시론적 논의**. 교육과정연구. 41(1). 162-184.
- 임유나, 홍후조. (2016). **우리나라 교육과정기준 문서 다층화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탐색**. 교육방법연구. 28(1). 55-77.
- 정기효. (2022). **어떻게 배움의 주인이 되는가**. 서울: 비비투.
- 정기효. (2022). **학생이 배움의 주인 되는 학생 생성 교육과정 지원단 연수**. 경북: 경상북도교육청 유치등교육과.
- 홍후조. (2022). **알기 쉬운 교육과정**. 서울: 학지사.
- Erickson, H. L., Lanning, L. A., & French, R. (2017). *Concept-bas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thousand Oaks, CA: Corwin.

- IBO. (2018). *Programme standards and practices*. Geneva, Switzerland. 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
- Larmer, J., Mergendoller, J., & Boss, S. (2015). *Setting the standard for project based learning*. 최선경, 장밝은, 김병식 역(2021). 프로젝트 수업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지식프레임.
- Lanning, L. A. & Brown, T. (2019). *Concept-based literacy lessons*. thousand Oaks, CA: Corwin.
- Marschall, C. & French, R. (2018). *Concept-based inquiry in action: strategies to promote transferable understanding*. 생각하는 교육과정과 수업을 위한 개념 기반 탐구학습의 실천: 전이 가능한 이해의 촉진 전략. 서울: 학지사.
- OECD. (2019). *OECD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2030*. Retrieved June 1, 2023, from https://issuu.com/oecd.publishing/docs/e2030-learning_compass_2030-concept_notes
- Zima, B. (2021). *Mindsets and skill sets for learning: a framework for building student agency*. Bloomington. IN: Marzano Resources.
- Zion, M. & Mendelovici, L. (2012). *Moving from structured to open inquiry: Challenges and limits*. Science Education International, 23(4), 383-399.
- Scanfeld, V., Davis, L., Weintraub, L. & Dotoli, V. (2018). *The Power of Common Language*. Retrieved June 28, 2018, from <https://www.ascd.org/el/articles/the-power-of-common-language>

부록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교원 설문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 귀한 시간을 내어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시는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교육정책 연구팀에서는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 실태 및 현장 교원의 인식 파악을 위한 기초 조사를 목적으로 합니다. 설문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의 효과적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모든 문항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조사를 위해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연구 기초 자료로 이용되며 그 밖의 용도로는 활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응답해주신 내용 일체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2023. 7.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방안 정책 연구팀

※ 응답하시는 선생님의 기본 정보에 대한 설문입니다. 다음 각 항목에서 해당하는 번호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1] 선생님께 해당하는 번호를 선택 바랍니다. (복수 선택 가능)

- 담임교사
- 전담교사
- 비교과교사
- 수석교사
- 교감
- 교장

[문 2] 현재 가르치고 계신 학년을 선택 바랍니다. (복수 선택 가능)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5학년
- 6학년

[문 3] 선생님의 교육 경력을 선택 바랍니다. (2023. 7. 1. 기준)

- 3년 미만
- 3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20년 미만
- 20년 이상

[문 4] 근무 중이신 학교의 소속 지역을 선택 바랍니다.

- 포항
- 경주
- 김천
- 안동
- 구미
- 영주
- 영천
- 상주
- 문경
- 경산
- 의성
- 청송
- 영양
- 영덕
- 청도
- 고령

- 성주
- 칠곡
- 예천
- 봉화
- 울진
- 울릉

[문 5] 근무 중이신 학교 규모를 선택 바랍니다. (본교 기준)

- 6학급 미만
- 6학급 이상 12학급 미만
- 12학급 이상 24학급 미만
- 24학급 이상

※ 다음은 ‘학생 생성 교육과정’에 대한 현장 교원의 인식 파악을 위한 설문입니다. 선생님의 의견과 가장 일치하는 항목을 선택 바랍니다.

[문 6] 학생 생성 교육과정에 대한 현장 교원 인식

세부질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학생 생성 교육과정이 무엇이며 어떻게 실행하는지 알고 있다.	<input type="radio"/>				
2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필요성 및 취지에 공감한다.	<input type="radio"/>				
3	학생 생성 교육과정은 학교 수준 교육과정 운영에 이바지한다.	<input type="radio"/>				
4	학생 생성 교육과정은 교사 수준 교육과정 운영에 이바지한다.	<input type="radio"/>				
5	학생 생성 교육과정은 학생 주도성을 증진한다.	<input type="radio"/>				
6	학생 생성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증진할 수 있다.	<input type="radio"/>				
7	학생 생성 교육과정, 놀이 중심 교육과정, 1-1-1 프로젝트 학습은 서로 명확히 구분되는 차별성이 있다.	<input type="radio"/>				
8	학생 생성 교육과정은 기초 학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input type="radio"/>				
9	학생 생성 교육과정은 저학년보다 고학년에 비해 적합하다.	<input type="radio"/>				

세부질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0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해 학생들은 교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input type="radio"/>				
11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해 동료 교사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input type="radio"/>				
12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해 학부모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input type="radio"/>				
13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해 교감 및 교장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input type="radio"/>				
14	학생 생성 교육과정은 교사의 교육과정 운영 부담을 가중한다. (가중한다고 생각하면 매우 그렇다 / 그렇다 체크)	<input type="radio"/>				
15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시수 확보가 어렵다. (어렵다고 생각하면 매우 그렇다 / 그렇다 체크)	<input type="radio"/>				

※ 다음은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설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으시고 현재 근무 중이신 학교의 운영 실태와 일치하는 항목을 선택 바랍니다.

[문 7] 올해 학생 생성 교육과정 관련 교내 연수를 최초로 받은 시기는 언제입니까?

- 1-2월(새학년 준비기간)
- 3-4월(학기 초반)
- 5-7월(학기 중후반)
- 여름방학 중 계획
- 2학기 및 겨울방학 계획
- 잘 모름

[문 8] 올해 학생 생성 교육과정 시수를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3-6학년 담임교사만 응답)

- 한 학기 중 특정 기간에 집중적 운영
- 1, 2학기로 나누어 특정 기간에 집중적 운영
- 연중 시수를 분산하여 여러 차례 운영
- 기타 의견 작성 및 담임교사가 아닐 경우 (온점) 입력 ()

[문 9] 올해 학생 생성 교육과정 예산 사용이 가능하도록 배정 받은 시기는 언제입니까? (담임교사만 응답)

- 3-4월
- 5-7월
- 2학기 중 배정 예정
- 기타 의견 작성 및 담임교사가 아닐 경우 . (온점) 입력 ()

[문 10] 올해 학생 생성 교육과정 예산의 주된 사용 계획은 어떠한 형태입니까? (담임 교사만 응답)

- 개별 학생 주제와 관련된 물품 구입
- 학생 팀별 주제와 관련된 물품 구입
- 학급 전체 주제와 관련된 물품 구입
- 학급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
- 기타 의견 작성 및 담임교사가 아닐 경우 .(온점) 입력 ()

[문 11] 학생들에게 학생 생성 교육과정이 무엇이며 어떻게 수행하는 것인지 마중물 활동(1차시 이상의 명시적 안내)을 운영하십니까?

- 네(실시 또는 계획함)
- 아니오

[문 12] 귀교에서 3~6학년 학생의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의 주된 안내 방식은 무엇입니까?

- 학교 설명회를 통한 명시적 안내
- 가정통신문을 통한 명시적 안내
- 학생 생성 교육과정 학부모 공개 수업
- 과정중심평가 통보지에 학생 생성 교육과정 평가 반영
- 명시적 안내 계획 없음

[문 13]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 시, 형성 평가 및 총괄 평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셨습니다가?

- 형성 평가 및 총괄 평가에 대한 계획을 문서로 수립함
- 총괄 평가에 대한 계획만 문서로 수립함
- 평가 계획을 문서로 수립하지 않음
- 기타: ()

※ 다음은 학생 생성 교육과정 자료집 활용 실태 조사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으시고 현재 근무 중이신 학교의 자료집 활용 실태와 일치하는 항목을 선택 바랍니다.

[문 14] 2023학년도에 학교로부터 제공 받은 학생 생성 교육과정 자료집 활용 현황을 선택 바랍니다. (복수 선택 가능)

- 학생 생성 교육과정 Q&A를 제공 받아 활용하고 있음
- 학생 생성 교육과정 Q&A를 제공 받았으나 활용하지 않고 있음
- 학생 생성 교육과정 워크북을 제공 받아 활용하고 있음
- 학생 생성 교육과정 워크북을 제공 받았으나 활용하지 않고 있음
- 기타(제공 받은 자료집명과 활용 여부를 기입 바랍니다.) ()

[문 15] <학생 생성 교육과정 Q&A>가 현장 운영에 실질적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지 않다	1 <input type="radio"/>	2 <input type="radio"/>	3 <input type="radio"/>	4 <input type="radio"/>	5 <input type="radio"/>	매우 그렇다
-----------	----------------------------	----------------------------	----------------------------	----------------------------	----------------------------	--------

[문 16] 위 문항에서 '그렇지 않다' 또는 '매우 그렇지 않다'를 선택하신 경우, <학생 생성 교육과정 Q&A>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선택 가능)

- 배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음
- 실사례가 아닌 이론 중심의 설명을 함
- 실제 운영 시 일어나는 문제와 동떨어짐
- 내용이 불충분하여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음
- 기타 의견 작성 또는 해당 없음 시 (문점) 입력 ()

[문 17] <학생 생성 교육과정 워크북>이 현장 운영에 실질적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지 않다	1 ○	2 ○	3 ○	4 ○	5 ○	매우 그렇다
-----------	--------	--------	--------	--------	--------	--------

[문 18] 위 문항에서 '그렇지 않다' 또는 '매우 그렇지 않다'를 선택하신 경우, <학생 생성 교육과정 워크북>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선택 가능)

- 배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음
- 작성 예시를 제시하지 않았음
- 워크북 작성은 학생에게 학습적 부담을 줌
- 워크북 활용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운영을 제한함
- 기타 의견 작성 또는 해당 없을 시 .(온점) 입력 ()

※ 다음은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설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으시고 선생님의 의견과 일치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시거나 기타 의견을 작성해 주십시오.

[문 19]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에 적절한 활동 형태에 대해 선택하시거나 기타 의견을 작성해 주십시오. (복수 선택 가능)

- 개인별 주제를 선정하고 활동하기
- 모둠을 먼저 조직하고 모둠 주제 선정하여 활동하기
- 개인별 주제를 먼저 들여보고 비슷한 주제를 통합하여 모둠별 활동하기
- 학급별 주제를 선정하고 활동하기
- 기타 의견: ()

[문 20] 학생 생성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적절한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선택 가능)

- 담임 교사
- 전담 교사
- 비교과 교사
- 교감 또는 교장
- 학부모
- 해당 주제의 외부 전문가
- 기타 의견: ()

[문 21]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주제 선정은 교육과정과 어떤 연계성을 지녀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과 내 주제와 연계하여 선정함
- 교과 밖 주제와 연계하여 선정함
- 주제의 교과 연계성 여부는 중요하지 않음

[문 22] 교사의 학생 생성 교육과정 실행력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선택 가능)

- 교원 업무 경감
- 교감 및 교장의 관심과 지원
- 동교 교원 간의 협력
- 교육과정 문해력 증진 연수
- 학생 생성 교육과정 연수
- 학생 생성 교육과정 지원 자료집
- 학생 생성 교육과정 별 자료실
- 기타: ()

[문 23] Erickson 및 Lanning의 개념기반 교육과정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개념기반 교육과정을 연구하여 수업에 적용하고 있음
- 개념기반 교육과정을 연구하고 있음
- 개념기반 교육과정을 들어본 적이 있음
- 개념기반 교육과정에 대해 알지 못함

[문 24] Marschall 및 French의 개념기반 탐구학습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개념기반 탐구학습을 연구하여 수업에 적용하고 있음
- 개념기반 탐구학습을 연구하고 있음
- 개념기반 탐구학습을 들어본 적이 있음
- 개념기반 탐구학습에 대해 알지 못함

[문 25]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개념기반 교육과정의 연관성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잘 알고 있음
- 다소 알고 있음
- 알지 못함

[문 26] 학교 자율시간을 활용한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에 대한 입장을 선택 바랍니다.

- 매우 적절하다
- 적절하다
- 보통이다
- 적절하지 않다
- 매우 적절하지 않다
- 학교 자율시간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문 27] 위 문항에서 '학교 자율시간을 활용한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이 적절하지 않다 또는 매우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복수 선택 가능)

- 학교 자율시간의 취지인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자율권이 침해됨
- 학교 자율시간은 학교장 개설 과목 또는 활동으로 운영함이 더 적합함
- 학생 생성 교육과정은 교과 수업 시간에 이뤄지는 것이 적합함
- 기타: ()

[문 28] 학생 생성 교육과정에 대한 학부모 이해도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수 선택 가능)

- 학교 설명회를 통한 안내
- 가정통신문을 통한 안내
- 학생 생성교육과정 학부모 공개 수업
- 과정중심평가 통보지에 학생 생성교육과정 평가 반영
- 학생 생성교육과정 학부모 멘토 활동 장려
- 기타: ()

[문 29] 학생 생성 교육과정 예산으로 외부 강사를 활용한 수업을 계획 및 운영하십니까?

- 교과 수업에 외부강사 예산 배정
- 창의적 체험활동에 외부강사 예산 배정
-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외부강사 예산 배정
- 외부 강사를 활용한 수업을 개설하지 않음
- 기타: ()

[문 30] 교육과정 시수 확보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학생 생성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하기 적절한 정책을 선택 바랍니다. (복수 선택 가능)

- 전환기 전로교육 학기제
- 학급 또는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
- 1-1-1 프로젝트 학습
- 에듀테크 활용 수업
- 기타: ()

[문 31] 교원의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 실행력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 개설 시 희망하시는 주제를 선택 바랍니다. (복수 선택 가능)

- 학교 수준 교육과정 운영의 이론과 실제
- 교사 수준 교육과정 운영의 이론과 실제
- 개념기반 교육과정 운영의 이론과 실제
- 이해중심 교육과정 운영의 이론과 실제
-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의 이론과 실제
- 기타: ()

[문 32]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효과 및 우수성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작성해 주십시오.

()

[문 33]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한계점 및 문제점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작성해 주십시오.

()

2023년 교육정책 현장연구 연구보고서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책임 연구원	김규대 (지천초등학교 교사)
공동 연구원	이지혜 (대교초등학교 교사) 유일 (지천초등학교 교사) 김태일 (왜관동부초등학교 교사) 이기택 (지천초등학교 교사) 최희경 (지천초등학교 교사) 권수진 (해마루초등학교 교사)
자문 위원	임유나 (대구교육대학교 교수) 이민혜 (대구교육대학교 교수)

발행일 : 2023년 10월 31일

발행인 :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 박용휘

발행처 :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36746 경상북도 안동시 강남로 152 (054-840-2278)

보고서탐재 : <http://shool.gyo6.net/gber>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홈페이지/정책연구/정책연구담당/정책연구보고서)

- 본 연구의 주장이나 제안은 연구진의 견해이며,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 이 보고서의 저작권은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에 있으며, 사전 승인 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Gyeongsangbuk-do Office of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Gyeongsangbuk-do Office of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Gyeongsangbuk-do Office of Education Research Institute